

#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COVER STORY

악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 COLUMN

전통의 고귀함

여기, 예술

거리에선 누구나 예술가

Jaap van  
Zweden

Clara-Jumi  
Kang

2024 10월 Vol.394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 BUSAN


## 10월 한달간의 부산음악 여행

# 부산원먼스 페스티벌 2024

釜山一個月的音樂盛典 / 釜山ワンマンズフェスティバル

###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4th

2024.10.1.TUE > 31.THU

01 공간523 브리즈온 양상블 클래식	02 cafe0101 우리소리 사랑방 퓨전 국악	03 BFGE 음악홀 폴리포니 기타듀오 클래식	04 스페이스움 하지림 퓨전밴드 K-퓨전재즈	05 계내랄파우제 GP 양상블 클래식	06 광안리남매 호정리 밴드 재즈	07 더락 프리포트 팝
08 가람아트홀 양상블 리에토 클래식	09 공간 겟츠 민주신 트리오 재즈	10 BOF아트홀 윤장미 외 3명 클래식	11 무사이 해서웨이 인디 팝	12 비바아첼 라이크 양상블 클래식	13 포포 스튜디오 지민,선우, 눈샘 팝	14 아이러브스페이스 라루체 팜페라/클래식
15 리얼라이즈 아크 라이트 크로스오버	16 아포지테라스 뚜또 베네 클래식	17 카페진목 도담양상블 클래식	18 금정아트홀 스튜디오 팔레트 클래식	19 구박갤러리 잼컷 클래식	20 오션컬처팩토리 홍영호 퀸벳 & 다히 재즈&팝	21 콘체르트보눔 휴 & 피유 팜페라/클래식
22 유정1995 알바루체 크로스오버	23 노가다 국악그룹 뜨락 국악	24 음악당라운 양상블 원잇 클래식	25 필슈파스 양상블 루치아 클래식	26 금사락 헤드터너 재즈	27 기타고라스 이승기 외 5명 클래식	28 스페이스 수정 힐앤윌스 뮤직 양상블 클래식
29 나눔락 손한별 외 4명 국악	30 음악풍경 프로무지카 가곡	31 BNK부산은행갤러리 위너스 양상블 클래식	 웹사이트 QR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소공연장연합회 후원 BNK 부산은행 문화의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KMA 한국미디어연맹 대동대학교 BFFF 부산음악장작소

2024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연기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경험한 강석우 내면의 세계를 “시어와 선율로 풀어낸 주옥같은 곡들을 감상할 감동적인 연주회”가 될 것이다. - 박인건(서울국립극장 대표)

강석우 작품은 “섬세한 감수성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 문일근(6인 비평가그룹 음악평론가)

강석우 작품을 통해 “시대적 담론과 서정성을 내포하는 가곡 사랑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정갑균(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 배우 강석우 렉처콘서트

## 《내 마음의 歌曲》



사회 및 해설 강석우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김준연

맑고 아름다운 미색의 소프라노 강혜정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하고 배우 강석우 자신의 작품세계와 歌曲이야기를 능숙한 사회로 청중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렉처콘서트!!!

사회 및 해설\_ 강석우 소프라노\_ 강혜정 · 고예정 테너\_ 김준연 바리톤\_ 송기창



BOS(부산 오페라심포닉)양상블 지휘\_ 백원석

2024. 11. 26 화 오후 7시 30분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관·주최 | JB 제이비(JB)아트컴퍼니 | 후원 | K 국제신문



| 티켓 | A석 6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입장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예매처 | interpark 티켓 1544-1555 | 예매 및 공연문의 | 010.3592.9002 / 010.2545.4939

20 Years ANNIVERSARY



제20회  
2024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23-26

BEXCO AUDITORIUM | BUSAN CINEMA CENTER | BUSAN CULTURAL CENTER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부산일보 국제신문

협찬 Rotary 대동대학교 SARATOGA 삼정 경동건설 S&P 선보공업 양산병원 명인제약 해운대 암소갈비집 유니바이오

문의 070-4172-0680 | 010-5593-0534 | 예매처 interpark 티켓 1544-1555 | [2024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입니다.

# 제20회 2024 부산국제합창제

10월 23일 ~ 26일 세계 22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대합창 경연이 펼쳐집니다.

## OPENING CONCERT

10.23 (수) 19:30  
벡스코 오디토리움

라포엠 | 월드엔젤피스 | 부산.원주.나주 시립합창단  
5개국 연합 합창단 | 부산 콘서트 오케스트라

interpark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GRAND CONCERT

10.24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

interpark 티켓 전석 1만원

## SPECIAL CONCERT

10.25 (금) 19: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4개국 참가 합창단 특별 공연

전석 초대 공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협찬 Rotary 대동대학교 SARATOGA 삼성 경동건설 선보공업 양산병원 명인재약 해운대 암스콜비집 유니바이오

문의 070-4172-0680 | 010-5593-0534 | [2024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 V

# 현대합창의 밤

**Program**

**외국 현대 합창음악**

Exodus (탈출) / Alex Berko

How to Go On (어떻게 가야하나) / Dale Trumbore

1. How (어떻게) 2. However Difficult (어려워) 3. To see It ((그것을 보라) 4. Relinquishment (포기) 8. When at Last (결국에는)

Carols After a Plague (대재앙 후의 노래) / Shara Nova

1. Urgency (긴급함) 2. Tone-policing (기존톤의 다른 표현) 3. Resolve (해결)

**한국 창작 합창**

한국 현대합창 마당쓰는소리 / 손정훈

공자반 / 손정훈

한국민요 강강술래 / 편곡 진규영

아리랑 / 편곡 진규영

한국가곡 내 맘의 강물 / 작곡 이수인, 편곡 진한서

한국가요 흔들리는 꽃 들속에서 네 삼푸향이 느껴진거야 / 편곡 손정훈

가을을 잇다 / 편곡 손정훈



2024. 11. 1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10,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제11회  
해운대재즈  
페스티벌

The 11th  
Haeundae

JAZZ  
Festival



10. 23. |수| 19:30  
마인드피아노의  
Autumn Jazz & Friends



10. 24. |목| 19:30  
송영주 트리오  
(게스트보컬 김유진)



10. 25. |금| 19:30  
킹스톤 루디스카



10. 26. |토| 17:00  
소울디바 임정희  
× 조수임 Jazz 쉐킷

2024. 10. 23. |수| ~ 10. 26. |토| 평일 19:30 / 토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대한민국 창작음악의 세계화 프로젝트2024\_

## 합창과 관현악 축제

Globalization of Korean Creative Music Project 2024\_  
Festival of Choir & Orchestra

# 일어나라 함께 가자

Arise, Come with Me

일시	2024. 10. 8. Thu.(화) 7:30 P.M.	티켓	전석 3만원	예매	interpark 1544-1555
장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장산역 12번 출구에서 232m)	주최	글로벌아트홀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후원	jbc 부산국립방송 GOOD TV 국제문화대학교		
		문의	070-8095-9426		

본 사업은 2024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곡 및 지휘

**신영순**

Shin, Youngsoon

음악학박사(Ph.D.) 음악학석사 국악학석사 음악학사 지휘디플롬 약사

찬송가 581장(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작곡자

2002 부산아시아게임음악 작곡자

2003 미국 매디슨음대 현대음악페스티벌 초청작곡가(주강사)

서울 국제문화대학교 교수

ICS신학대학원 부총장

미국 미네소타신학대학원 석좌교수

부산대학교와 7개 대학 외래교수 30년 역임

문화예술전문단체 글로벌아트홀 예술감독

GOODTV 운영이사

수상 : 대한민국작곡상 / 동아콩쿠르작곡상 / 부산음악상 / 부산예술상



#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10월호 Vol.394



Column	10	전통의 고귀함
여기, 예술	12	거리에선 누구나 예술가
현대미술산책	15	두 경계인의 시선
Cultural Issue	18	올해 한국 연극계의 뜨거운 스타 마케팅
Cover Story 1	24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Cover Story 2	26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상반기 기획공연
Preview	32	
문화가 화제	44	10월에 떠나는 문화 나들이
Review	52	
Program Guide	54	
New Book	70	



# 전통의 고귀함

•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작곡가



일반적으로 전통은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을 지칭하는데, 이 전통(傳統) 두 글자를 단순히 한자풀이해도 ‘뿌리로부터 전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것이 다수 사람들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관습, 행동 등에 의해 역사적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져오는 것으로, 즉 우리 본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그 어떤 시기이든 그 당시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들의 몫일 것이다.

시인이자 극작가 겸 평론가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캣츠’의 바탕이 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비롯한, 20세기 시단(時壇)의 위대한 작품인 ‘황무지’ 및 ‘4개의 4중주’를 쓴 T. 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란 글에서 ‘전통’은 역사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사의식에는 과거의 과거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현재성에 대한 인식도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역사의식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으로 전통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에 대하여 극히 날카롭게 의식하는 것이라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어느 부분의 예술가이건 혼자서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는 없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그 평가는 과거의 작품들과 대조, 비교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나 역시도 전통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적 창조물의 바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가를 위한 ‘별한’이라는 곡이 있다. 정가(正歌)는 ‘아정하고 바른 음악’이란 의미를 가지는 우리의 전통 성악 장르 중 하나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판소리, 민요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창법이 곱고 깨끗하며, 주로 궁중이나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겼다. ‘별한’이라는 곡 제목은 조선시대 뛰어난 예인이던 기생 매창의 시조에서 가져온 것으로, 매창의 유명한 시 ‘이화우 흠뿌릴 제’를 비롯하여, ‘규원(閨怨)’, ‘별한(別恨)’, 그리고 그녀의 정인이었던 촌은(村隱) 유희경의 ‘도중억계랑(途中憶癸娘)’, 이렇게 4개의 시조를 가사로 엮어 남녀 정가 이중창 형식으로 만들었다.

매창은 황진이와 많이 비견되며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을 포함하여 그 시대 여러 선비들과 교류를 나눌 만큼 뛰어난 글재주와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유희경 또한 신분은 천민이었지만 뛰어난 학식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졌는데 이는 곧 서로에 대한 문학적 깊이와 시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리라

생각된다. 시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며 마음의 정이 깊어갔다. 그러나 이내 긴 시간동안 두 사람은 기약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때도 서로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시로 적어 많이 주고 받았는데, 그중 두 시조만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짧은 만남을 통해 서로 마음으로써 사랑을 나누었지만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니 그 마음을 아쉬워하며 쓴 매창의 시 ‘별한(別恨)’이다.

임 떠난 내일 밤이야 짧고 짧아지더라도	明宵雖短短
임 모신 오늘 밤만은 길고 길어지소서	今夜願長長
닭 울음소리 들리고 날은 곧 새려는데	鷄聲聽欲曉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	雙臉淚千行

다음은 유희경의 시 ‘도중억계랑(途中憶癸娘)’이다. ‘길에서 문득 계랑을 생각하다’는 뜻의 ‘도중억계랑’은 길을 가다가도 그녀 생각이 나고 늘 그녀를 그리워하는 유희경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여기서 계랑은 매창의 다른 이름으로 유희경은 매창을 늘 계랑이라 불렀던 듯하다. 그의 호를 딴 시문집 <촌은집>에는 매창에게 전해준 시 중 7수를 소개하였는데 모두 계랑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다.

고운 임 이별한 후 구름이 막혀	別佳人隔楚雲
나그네 마음 어지럽다오	客中心緒轉紛紛
청조도 날아 오지 않아 소식 끊기니	靑鳥不來音信斷
벽오동 찬 비 내리는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碧梧涼雨不堪聞

<별한>이라는 곡 안에서 매창의 시는 여창가곡으로, 유희경의 시는 남창가곡으로 표현하였는데, 정가 여창가곡은 부드럽고 순백의 미가 있다면, 남창가곡은 깨끗하고 기백이 넘치는 소리가 일품이다. 고결한 우리 소리 정가,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거리에선 누구나 예술가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2020 감만상상데이(출처: 부산문화재단)

## 예술은 원래 거리의 것이었다.

종교적 제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축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민간의 노래와 춤은 일상의 오락이자 유희였다. 존 듀이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직접적 감각은 모든 관념적 내용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내용을 제외한, 지적인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되므로 인간이 신체로 감각하게 되는 재미와 심미는 일상에 반응하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페테르 브뤼겔(Pieter Bruegel)의 1559년 작 <카니발과 사순절 사이의 싸움(The Fight Between Carnival and Lent)>을 들여다보면 당시 민간의 질박한 삶과 놀이감에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물가에서 물 걷는 사람, 그 곁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놀이와 팽이놀이를 하는 사람들, 원통형의 기구를 썰매로 타는 사람, 작은 악기를 가슴에 안고 연주하는 사람, 기괴한 의상을 입고 햇불을 든 사람, 환자와 함께 앉아 동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궁정에서 문화적 우아함을 떨치기 위해 오페라를 제작하거나 교회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전례극<sup>1</sup>을 제작했지만, 이는 지배층의 통치력을 강화하거나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궁정과 교회의 예술은 보통 사람들에게겐 닿을 수 없거나, 먼 것이었다.

중세 말 잇따른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회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연극은 교회 밖으로 나와 이동형 마차 무대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농민과 상인 등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베라 벨몽(Vera Belmont) 감독의 영화 <마르키스(Marquise)>(1997)를 보면 루이 14세 당시 장터에서 이루어지던 거리예술의 정경을 상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화 <무동>, <고누놀이>, <씨름>을 통해 거리에서 이루어지던 춤과 놀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백성 가까이에서 작디작은 그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주던 굿 노래와 춤, 일터에서 놀았던 지신밟기, 백중놀이, 어방놀이, 탈춤과 같은 온갖 민속예술들은 원래 일상과 삶의 한 장소로서 예술이 함께 했음을 알게 해 준다.



페테르 브뤼겔, 카니발과 사순절 사이의 싸움, 1559

오늘날 우리도 일상의 거리에서 예술을 만난다. 거리예술은 중심성을 떠난 탈중심성의 세계이고 다원성의 영역이다. 길 거리, 공원, 지하철, 광장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춤, 서커스, 음악, 그래피티, 마임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규모 면에서도 소규모 공연에서 부산항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와 같은 대형 축제까지 여럿이다.

관객이나 향유자의 역할은 거리예술에서 창작자, 연희자로 치환된다. 경기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공고문을 보면 전문예술인 외에도 생활예술인, 장애인예술인, 새터민, 다문화가족구성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창작자로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는 고도로 정제된 이상적 세계를 구현하는 극장과는 달리, 누구나 평소 잘하는 장기와 기예를 한껏 뽐내어 보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리에 선 예술가들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 어떤 발화를 할까. 김미순<sup>2</sup>은 '길거리 노래' 음악가들이 주류 및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는 대신 대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마이너리티의 건강성으로 보았다. 주류에 대한 비판적 저항성 때문에 독립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류체계와 차별화된 문화 마당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미국의 아티스트 마그다 사예그(Magda Sayeg)는 교통표지판이나 벤치 같은 공공시

설에 '예고 없이' 뜨개질 작품을 걸어 일상의 공간에 예술적 상상과 함께 사회적 메시지를 띄운다. 이들에게 거리는 기존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주체적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무대이자 캔버스이다.

건물 벽이나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젝트(Philadelphia Mural Arts Program)처럼 대규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가 '허가 없이' 그려지기도 한다. 그런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아티스트 뱅크시(Banksy)다. 그는(혹은 그녀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를 공개적인 장소에 남기고 있다. 2022년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로디안카에서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벽에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와 어른이 유도를 하는데 작은 체구의 어린이가 건장한 체구의 어른을 단숨에 업어치기 하는 그림이었다.

우리나라 대표 거리공연인 탈춤 중 양반 과장에서도 승자는 언제나 마부 말뚝이다. 양반 다섯 명이 등장하여 어렵고 장황한 고문(古文)으로 사설을 읊으며 으스스대 보지만 말뚝이의 기지 넘치는 재간에는 당해내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탈춤이 산대놀이, 야류, 오광대 등으로 달리 불리고 양식도 조금씩 다르나 그 점에서는 모두 같다.

이렇듯 소소하고, 때로는 독립적이고 저항적인 거리의 예술이 공공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68혁명 이후 문화민주주의 시대를 맞으면서이다. 근대에 이르러 예술을 지원하는 주체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가가 되었다. 이 막중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950년대 프랑스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

(André Maiaroux)는 문화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정책을 펼쳤다. 고급예술을 사회 저변에 널리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엘리트층을 위한 문화로 비판받게 된다.

이후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 시절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은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 정책을 표방하면서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즉 아마추어예술, 대중예술, 대안문화, 거리예술 등 예술의 실천적 장들이 확대되면서 아마추어와 전문예술가를 구분하지 않고 예술에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정책들이 시행된 것이다. 1993년 프랑스 정부는 거리예술만을 위한 기구인 오흐 레 뮈르(Hors les Murs)를 설립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예술 미학적 인식을 보장하고 거리예술 분야의 공식적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1983년 마르세유에 국립거리예술창작센터 리유 뽀블릭(Centre National de Creatio des Arts de la Rue, Lieux Publics)도 설립하여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창작과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에서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서울, 부산, 울산, 안양, 강진, 속초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거리예술이 공적인 장(場) 안으로 들어와 제도와 예산의 지원 속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장에 있어서 주체는 언제나 거리예술가, 즉 시민들이다. 그러므로 거리예술이라면, 시민의 문화적 중심성 탈환이라는 미학적 호쾌함만은 놓쳐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이 거리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1.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꾸민 문답형식의 음악극

2. 김미순, 「일상성의 문화적 잠재력 연구: 싱어송라이터의 '길거리 노래'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통권 12, 2013. 참고.

3. 박상순, 「2000년대 프랑스 거리예술정책 연구」, 『연극 교육 연구』(31), 2017.과 <https://www.lieuxpublics.com/f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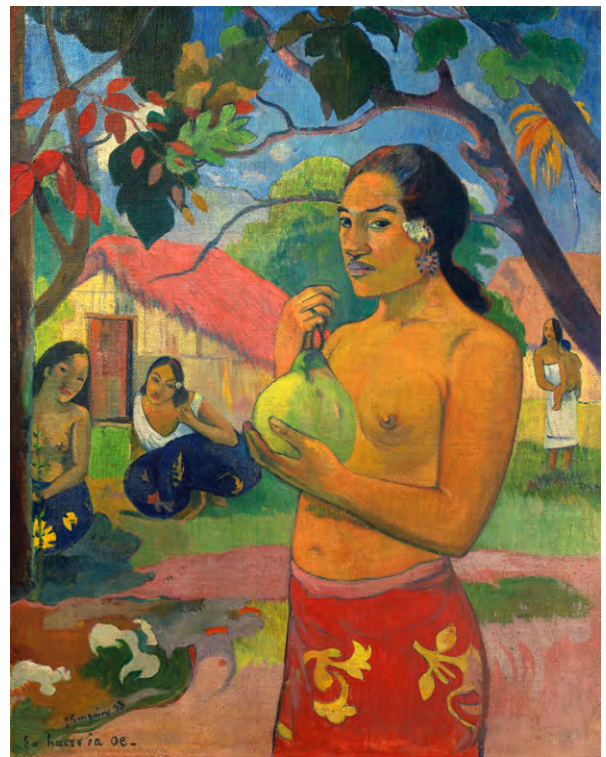
## 두 경계인의 시선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1891년 6월, 두 달간의 긴 항해 끝에 화가 고갱(Paul Gauguin, 1712-1778)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도착했다. 고갱은 반듯하게 짜인 유럽 도시의 삶과는 다른, 보다 생생한 정서와 날것 그대로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프랑스령 식민지 수도인 파페에테는 유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원주민들은 유럽식 드레스를 입고 다녔다. 겨우 유럽을 벗어났는가 싶더니 그곳은 변형된 또 다른 유럽이었다. 고갱은 파페에테를 떠나 타히티의 더 깊은 시골인 마타이에아 섬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원시적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 고갱은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열대의 풍경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캔버스에는 고전주의 회화에서와 같이 수학적 원근법을 바탕으로 신과 영웅이 등장하는 이상적인 장면도, 19세기 후반기 유행하던, 빛을 쫓던 인상주의의 대담한 붓질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심플한 형태 위 평평하게 퍼 바른 원색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후 그의 작품은 후기인상주의로 명명될 예정이었다.

타히티에서 고갱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완성하며 ‘낭만적 원시주의’의 이상적 종합을 보여준다. 먼저 고갱을 설명할 때 따라붙는 원시주의를 살펴보자. 이때의 ‘원시’라는 말에는 태고, 원초와 함께 순수, 미개를 포함하며, ‘원시주의’는 복잡하고 문명화된 현재에서 순수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원시주의는 퇴락한 현재, 발전한 문명과 날것 그대로의 과거, 미개척된 자연이라는 이분법 위에서 작동하며 전자의 시공간에서 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폴 고갱, <어디로 가니?>, 1893, 캔버스에 유화, 92.5X73.5cm, 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폴 고갱, <황색 예수가 있는 자화상>  
1889~1890, 캔버스에 유화, 38×46cm  
오르세 미술관, 파리

원시주의가 유럽에 퍼지게 된 시기는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던 19세기 이후로, 유럽 강대국들이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장하던 때와 겹친다. 제국의 유럽인들은 문명화로 잃어버린 심성을 덜 발달한 식민지나 태초의 자연에서 찾아 자신을 쇄신하고자 했다. 이것이 계몽주의를 비판한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가 ‘고귀한 야만인(noble savage)’을 주장했던 이유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 본성은 본디 선하나, 인위적인 법과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고 타락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니 강제적 억압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본성을 꽃피우는 고귀한 야만인이 되어야 한다. 루소와 같은 생각은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낭만주의 예술운동에 영향을 끼쳐 예술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을 표현하게 된다. 고갱은 낭만주의적 전통 위에서 원시주의를 꽃피운 예술가로, 그의 낭만적 원시주의는 ‘고귀한 야만인’의 직접적 표명

이었다. 그는 원시성을 동경하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 프랑스 시골 마을인 브르타뉴와 서인도 제도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을 거쳐 타히티에 정착하였고 원주민들과 생활하며 그곳의 원시성을 경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에서의 삶과 가족을 그리워한, 이미 문명화된 이방인이기도 하였다. <황색 예수가 있는 자화상>(1889~1890)은 한쪽에는 기독교로 대표되는 유럽 문명과 반대쪽에는 조각으로 표현된 원시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고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예술에서도, 삶에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경계인 고갱은 유럽 문명에서 태어난 원시주의를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열어갔다. 타히티의 모습을 그린 <어디로 가니?>(1893)에서와 같이, 단순하고 생생한 삶은 간결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드러났다. 고갱은 사물 형태의 주변으로 붉은 윤곽선을 둘러쌌으며 그렇게 생긴 넓은 면 위에 원색을 퍼 발랐다. 물론 이때의



색채 또한 시각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감성과 생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고갱에게서 형태와 색채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듯 소박하면서도 직접적인 삶에의 감각은 고갱의 원시주의를 새로운 형식으로 이끌었고 이것은 피카소와 마티스 같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나아가 형태와 색채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에 영향을 준다.

고갱의 낭만적 원시주의는 한국근대미술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화단은 일본으로부터 유럽의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를 받아들였다.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의 대표작 <어느 가을날>(1934)에는 고갱의 분위기가 진하게 배어있다. 붉은 대지 위, 계절과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물들이 피어나 있고, 상반신을 드러낸 여인과 등을 돌린 소녀가 서 있다. 사물의 형태는 소박하며 원색의 화면은 강렬하면서도 단순하다. 동시에 고갱의 원시적 풍경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나른하면서도 다소 멜랑콜리한 느낌을 준다. '어느 가을날'이라는 제목과 다르게 그림은 계절의 불일치와 장소와 모호성을 드러내며 현실을 벗어난다.

이인성은 이 작품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1934년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받았다. 1930년대 조선미술계를 주도했던 것은 '조선색(朝鮮色)'이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계기가 얽혀있다. 1930년대 중반



이인성, <어느 가을날>, 1934, 캔버스에 유화, 96×161.4cm, 리움 미술관, 서울

을 넘어가면서 일제는 민족운동가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였고 중일전쟁에 따른 전시체제 돌입 및 국가총동원법 발령 등 시대는 더욱 암울하게 흘러갔다.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족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며 학계와 문화예술계에 '조선적인 것'이 대두했다. 한편, 일제는 조선의 근대화를 지배 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조선이 이국적이고 목가적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유럽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문명화되지 않은 순수한 곳으로 바라보던 원시주의적 시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미술계에서 '향토색'론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이인성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조선미전에서는 조선의 시골 풍경, 초가집, 아이를 업은 어머니 등 시골의 정취가 담긴 소재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재들은 근대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낭만적 원시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선미전 출품작들은 고갱의 원시주의와는 사뭇 다른 성질을 보여준다. 고갱은 순수함을 추구하며 원시로 갔던 문명이었다면, 조선인이 그린 조선의 풍경은 식민지배자들이 요구한 식민지의 순수성과 조선인으로서의 조선적인 것의 추구가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었다. 한편 그 형식은 조선 전통의 것에서 발현, 변형된 것이 아닌 고갱과 같은 후기인상주의 등 서양 근대미술의 형식을 빌어온 것이다.

이인성의 <어느 가을날>에는 개인과 시대의 어지러운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는 식민지인으로서 제국의 미술대회에서 활약했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을 그리면서도 한편으로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양화를 하는 화가로서 서양의 형식으로 조선의 풍경을 표현했다. 이인성의 작품을 지배하는 우울한 나른함과 모호함은 이상향을 꿈꾸지만, 현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감성이다. 그러나 그 감성은 스스로 고귀한 야만인이 되고자 했던 문명인 고갱이 느꼈던 감성과는 다른 출처를 지닌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계인의 심정이다.

## 올해 한국 연극계의 뜨거운 스타 마케팅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로 잘 알려진 스타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가 최근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데뷔했다. 비비안 버몬트 극장(1,080석)에서 9월 5일 개막해 11월 24일까지 공연하는 연극 <맥닐>에서다. 풀리처상을 받은 작가 야야드 아크타르와 토니상을 받은 연출가 바틀렛 셔 등 창작진도 뛰어나지만, 대중의 관심은 역시 로다주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로다주가 10대 시절 연극에 출연한 적 있지만 '공연의 메카' 브로드웨이에서 제대로 데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에서 500석 이상의 상업적 극장 41곳을 통칭한다. 국내에선 뮤지컬 전용 공연장처럼 오해되지만, 연극도 자주 공연된다.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맥닐>의 티켓 가격은 해당 공연장 사이트에 최저가 155.50달러(약 21만원)부터 최고가 371달러(약 40만원)에 올라와 있다. 다만 판매처와 수요에 따라 티켓 가격이 변하는 브로드웨이 특성상 다른 사이트에는 484.24달러(약 65만원)까지 올라간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로다주를 필두로 할리우드의 거물급 배우들이 내년 잇따라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오른다. 봄에는 조지 클루니가 슈베르트 극장(1,502석) 무대에 오르는 <굿나잇 앤 굿럭>으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하고, 덴젤 워싱턴과 제이크 질렌할은 슈

베르트 그룹의 또 다른 극장의 <오셀로>에 출연한다. 그리고 가을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고도를 기다리며>로 연극 신고식을 치른다.

브로드웨이 무대에 스타 배우가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최근처럼 거물급 배우들 등장이 잇따라 예고된 것은 드물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브로드웨이의 극장 소유주이기도 한 공연 제작사들이 스타 캐스팅을 통해 젊은 관객을 극장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신작 뮤지컬들이 높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제작사들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은 연극을 많이 제작한다고 분석했다. 배우 입장에서 최근 할리우드가 검증된 시리즈물 위주로 제작비를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올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명 배우들의 연극 출연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소극장 연극으로는 <거미여인의 키스>(1월 21일~3월 31일)의 정일우, <클로저>(4월 23일~7월 14일)의 안소희 이상윤 진서연, <빵야>의 박성훈, <사운드 인사이드>의 문소리 이현우, <랑데부>의 박성웅 최원영,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의 광동연 최민호 등이 출연했거나 출연 중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소극장 연극 중심의 한국 연극계가 스타 배우들을 앞세운 대극장 연극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1,335석의 LG아트센터 시그니처홀에서 <벚꽃동산>(6월 4일~7월 7일)이 올라간 데 이어 702석의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햄릿>(6월 9일~9월 1일), 1,221석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맥베스>(7월 13일~8월 18일), LG아트센터 시그니처홀에서 <엔젤스 인 아메리카>(8월 6일~9월 28일)가 관객과 만났다.

<벚꽃동산>은 러시아의 사실주의 연극의 거장 체홉의 4대장막극 가운데 하나다. 제정 러시아 말기 몰락해가는 귀부인 류바와 농노에서 부유한 사업가가 된 로파현의 이야기를 그린 원작은 이번에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에 의해 현대 한국 배경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칸의 여왕’ 전도연과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박해수가 출연한 이 작품은 연일 화제를 모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손진책 연출 <햄릿>과 양정웅 연출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햄릿>은 박정자 전 무송 손숙 등 한국 연극계의 전설적인 원로 배우들을 필두로 다양한 세대의 배우 24명이 모인 축제의 장이 됐다. 원전 텍스트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한편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햄릿 공주’라는 젠더프리 캐스팅을 시도한 국립극단의 <햄릿>(7월 5~29일)과 비교되며 두 작품을 함께 보려는 관객이 많았다.

또 <맥베스>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강렬한 미장센과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 고전 희곡이 따분하다는 선입견을 날려버렸다. 영화 <국제시장> <베테랑> <서울의 봄>을 통해 트리플 1,000만 배우 반열에 오른 황정민을 비롯해 김소진 송일국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막 전부터 매진을 기록한 이 작품은 1회차를 추가하기도 했다.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신유청이 선보인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현대연극의 고전이다. 미국의 대표 극작가 토니 쿠쉬너의 폴리처상 수상작으로 밀레니엄을 앞둔 세기말의 혼돈과 공포를 담았다. 3시간이 소요되는 파트 원과 5시간의 파트 투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에는 파트 원만 다뤘다. 주역을 맡은 배우 유승호 손호준 고준희 정혜인은 이 작품을 통해 연극에 데뷔했다. 여기에 예술의전당이 조승우를 앞세워 선보이는 <햄릿>(10월 18일~11월 17일)이 올해 연극계 스타 마케팅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신유청이 연출을 맡은 이 작품에는 조승우 외에도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친숙한 김영민 전국환 등이 캐스팅됐다.

국내에서 유명 배우들의 연극 출연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영화·OTT 시장 위축으로 제작 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배우들이 눈을 돌린 곳이 연극이다. 연기의 공백을 채우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으려는 목적이 크다. 황정민과 박해수처럼 무대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배우들이 꾸준히 무대를 찾는다면, 유승호와 안소희 등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배우들은 하나같이 “많이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스타 배우들의 출연은 연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좋아하는 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소극장 연극이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날카로운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대극장 연극은 묵직한 이야기와 인상적인 미장센으로 강한 울림을 준다. 매체 배우들은 무대를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동시에 연극계엔 활력이 돈다는 점에서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높은 출연료가 티켓값을 올리는 데다 관객이 스타가 출연하는 공연만 찾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스타가 출연한 연극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더블 또는 트리플 캐스팅인 경우 배우 팬덤에 따라 티켓 판매량 차이가 너무 커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1 맥베스 ©(주)캠컴퍼니  
2 벚꽃동산 ©Studio AL 4215

SUN	MON	TUE	WED
<p><b>사랑채극장</b></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7일(토)~10월 12일(토)</li> <li>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li> <li>10월 1일(화), 3일(목), 9일(수)</li> <li>오전 11:00, 오후 2:00</li> <li>※ 화-금요일 오전 10:30 단체공연</li> <li>• 관람료: 전석 1만2천원(전 연령 관람)</li> <li>•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li> </ul>	<p>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월 22일(화)-12월 6일(금)</li> <li>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일-월요일 휴관)</li> <li>• 관람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li> <li>•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li> </ul>	<p><b>1</b></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3회 정기연주회 'Romantic'</p> <p>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 10:3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b>6</b></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막작 '라 갈러리(La Galerie)' 20:00</p> <p>대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더 라틴 터치&amp; 피아노 병창 춘향' 17:00</p> <p>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b>7</b></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뮤지컬 '1976 활란카운티' 콘서트 20:0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두들팝' 18:30</p> <p>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b>8</b></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폐막식 19:30</p> <p>폐막작 '고르니슈트' 20:0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b>13</b></p> <p>이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라온콰이어 창단연주회 17:00</p> <p>대 라온콰이어합창단(010-2874-2001)</p> <p>부산거문고악회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p> <p>중 무료/부산거문고악회(010-2531-8350)</p> <p>보티첼리 &amp; 리성야 콘서트 17:00</p> <p>참 전석 3만원/(주)케이아트엔컴퍼니(02-797-7290)</p>	<p><b>14</b></p>	<p><b>15</b></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p> <p>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국민주의 음악의 밤' 19:30</p> <p>참 K.P.S(010-7742-0556)</p>	<p>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p> <p>2024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 중 무료/(사)부산음악합</p> <p>배승현 귀국 첼로 독주회 참 초대/Neue Musik Se</p>
<p><b>20</b></p> <p>2024 제16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16:00</p> <p>대 초대(인터넷 신청)/KNN(850-9568)</p> <p>제62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19:00</p> <p>중 무료/(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부산리코더양상물 제14회 정기연주회 18:00</p> <p>참 초대/부산리코더양상물(010-2562-6561)</p>	<p><b>21</b></p>	<p><b>22</b></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p> <p>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클래식기타리스트 배학수 콘서트 19:00</p> <p>참 배기타전문학원(246-2780, 010-3585-3780)</p>	<p>제62회 부산예술제 '가 중 무료/(사)부산음악합</p>
<p><b>27</b></p> <p>제35회 이견음악회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17:00</p> <p>대 초대(주최측 문의)/이건홀딩스(1522-1271)</p> <p>제62회 부산무용예술제 19:30</p> <p>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하부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18:30</p> <p>참 전석 1만원/하부성(010-8548-3375)</p>	<p><b>28</b></p>	<p><b>29</b></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합창제' 19:0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융복합 예술 콘텐츠 프로젝트 '립모션으로 생상을 그리다' 14:00</p> <p>참 무료/㈜다소니(328-9998)</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대 무료/(사)부산문화회</p> <p>김진세 기타 리사이틀 '발 참 5만원-3만원/파트티</p>

ED	THU	FRI	SAT
2	3	4	5
<p>공연 '교실밖 합창여행'</p> <p>사업팀(607-3115, 3113)</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막식 19:00</p> <p>개막작 '라 갈러리(La Galerie)' 19:30</p> <p><b>대</b>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막식 19:00</p> <p>개막작 '라 갈러리(La Galerie)' 19:30</p> <p><b>대</b>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두 팔을 벌려서(Open Your Arms)' 20:00</p> <p><b>대</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영남무악' 17:30</p> <p><b>중</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재단(745-7275)</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Ensemble' 17:00</p> <p><b>챗</b>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10	11	12
	<p>2024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엄마의 일기장' 19:30</p> <p><b>대</b>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일파가야금합주단 絃의 祝祭 열 네번째 '가야금과 현죽농음(絃竹弄音)' 19:30</p> <p><b>중</b> 무료/일파가야금합주단(010-5148-3336)</p> <p>제1246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p> <p><b>챗</b> 전석 1만원/(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p>	<p>부산시민을 위한 대합창 Festival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19:00</p> <p><b>대</b>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010-3936-7757)</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IV '줌인(Zoom-in) 2-리시안 로망스' 19:30</p> <p><b>챗</b>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30회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18:00</p> <p><b>중</b> 전석 2만원/현대무용단 자유(010-3383-2342)</p> <p>제2회 지음양상을 정기연주회 리그 오브 뮤직 'Classic vs Modern' 19:00</p> <p><b>챗</b> 전석 1만원(현장구매)/지음양상블(010-9798-4538)</p>
6	17	18	19
<p>기념식 10:00</p> <p>관(715-1025)</p> <p>랜드피아노페스티벌' 19:30</p> <p>회(634-1295)</p> <p>19:30</p> <p>hule(010-5558-4950)</p>	<p>2024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 사업 '에드바르의 초상수업' 19:00</p> <p><b>대</b>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부산음악대축제 IV '합창 대축제' 19:30</p> <p><b>중</b>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b>챗</b> 전석 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7회 정기연주회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 19:30</p> <p><b>대</b>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여성연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p> <p><b>중</b> 무료/부산시여성연합창단(010-7755-0436)</p> <p>토마스 슐츠가 연주하는 나효신의 피아노음악 19:30</p> <p><b>챗</b>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Coldplay &amp; Oasis 오케스트라 Festa - 부산 17:00</p> <p><b>대</b> 아트인뮤직(02-525-4420)</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첫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17:00</p> <p><b>중</b>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양은제 리사이틀 17:00</p> <p><b>챗</b> 전석 3만원/양은제(010-9384-7568)</p>
3	24	25	26
<p>곡과 아리아의 밤' 19:30</p> <p>회(634-1295)</p>	<p>제20회 2024 부산국제합창제 그랜드 콘서트 19:30</p> <p><b>중</b> 전석 1만원/부산국제합창제(070-4172-0680)</p> <p>반지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p> <p><b>챗</b> 초대/반지영(010-8410-1046)</p>	<p>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舞歌 용호상박' 19:30</p> <p><b>대</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p> <p><b>중</b>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슬 귀국 첼로 독주회 19:30</p> <p><b>챗</b> 초대/이슬(010-3551-6332)</p>	<p>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舞歌 용호상박' 15:00</p> <p><b>대</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0	31	<p>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p> <p>7월 2일(화)-10월 27일(일)</p> <p>·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p> <p>·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p> <p>· 문 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p>제35회 부산합창제' 19:00</p> <p>관(607-6000)</p> <p>해는 밤' 20:00</p> <p>(02-3471-0017)</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합창제' 19:00</p> <p><b>대</b>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창작오페라 '페스트' 19:30</p> <p><b>중</b> 7만원-5만원-3만원/루체테음악극연구소(513-1009)</p> <p>소프라노 이지현 귀국독창회 19:30</p> <p><b>챗</b> YJ클래식스(010-9901-6885)</p>	<p><b>전시실</b></p> <p>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p> <p>7월 2일(화)-10월 27일(일)</p> <p>·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p> <p>·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p> <p>· 문 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SUN	MON	TUE	WE
		1	2 제71회 한얼노인교육축제 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6	7	8	9
13 2024 주현미 콘서트 'The Original' 17:00 대 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쇼플러스(1544-7543) 2024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창작 판소리 '필, 연(蓮)' 17:00 소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4	15	16
20 플레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무지개 구출 작전' 11:00, 14:00, 16:30 소 전석 7만원/썬밤은누리(1566-9621)	21	22	23
27	28	29	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시

ED	THU	FRI	SAT
2 13:00 (010-8826-1192)	3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FESTA 17:00 대 8만8천원·6만6천원·4만4천원 아트인뮤직(02-525-4420) 문화관 모이라 '슬픔이 찬란한 이유' 19:30 소 전석 3만원/문화관 모이라(010-9701-0712)	4 문화관 모이라 '슬픔이 찬란한 이유' 19:30 소 전석 3만원/문화관 모이라(010-9701-0712) 2024 시민뜨락축제 '날라리와 쟁이, 부산시립무용단'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2024 춤소리 예술단 정가공연_김정원의 춤 열 두번째 이야기 '영남의 시간 연을 맺다' 18:00 대 전석 3만원/춤소리예술단(636-8071) 문화관 모이라 '슬픔이 찬란한 이유' 15:00 소 전석 3만원/문화관 모이라(010-9701-0712)
	10 제62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개막공연 '예술낙원' 17:00 대 무료/(사)부산예총(631-1377)	11 제21회 한마음경로대잔치 09:40 대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010-3333-0169) 2024 시민뜨락축제 '하퍼스, 이병주 밴드'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조선 최초의 서커스 부남사당 19:30 소 전석 4만원/매직큐(070-4221-4726)
6	17	18 2024 시민뜨락축제 '라틴재즈밴드 겟츠 with 살사팟'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배니상' 14:00, 18:00 대 6만6천원·4만4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플레이뮤지컬 '핑크퐁과 야기상어의 무지개 구출 작전' 11:00, 14:00, 16:30 소 전석 7만원/(썬)밝은누리(1566-9621)
3	24 제2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사랑의 묘약'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	25 제2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사랑의 묘약'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연극 '이단자들' 19:3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4 시민뜨락축제 '현미밴드, 밴드 휴고'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2024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15:00 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866-636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연극 '이단자들' 14:0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 예술교육공연 '식' 10:30 업팀(607-3115, 3113)	31	전시실 제18회 대한민국한서미술대전 전국공모전 10월 2일(수)-10월 12일(토) 전시실 1, 2 ·문 의: 한서미술협회(808-2322~3) 제62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전' 10월 18일(금)-10월 20일(일) 전시실 1, 2 ·문 의: 부산꽃예술작가협회(612-2604)	제62회 부산예술제 '한국사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10월 22일(화)-10월 26일(토) 전시실 1, 2 ·문 의: (사)한국사작가협회 부산지회(631-411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립무용단  
결작시리즈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 시립무용단

# 용오사악기

舞歌

판소리 적벽가와  
한국의춤의 만남

예술감독  
이정윤

연출/안무  
국수호  
이정윤

음악감독  
김태영

작창  
한승석



2024.  
10. 25 (금) 19:30  
|  
10. 26 (토)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티켓 R석 30,000 S석 20,000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 051.607.6000



#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T**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아트홀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A아트홀 1600-1602



#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좌석 VIP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4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휘봉을 잡은 압 판 츠베덴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부산을 찾는다. 이번 무대는 신임 음악감독 압 판 츠베덴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첫 번째 국내 투어로, 새롭게 변모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만날 수 있다.

##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유명한

### 압 판 츠베덴 예술감독

네덜란드 출신의 압 판 츠베덴 예술감독은 2018년 9월부터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2012년부터는 홍콩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유럽에서는 오케스트라 드 파리,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미국에서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등을 객원 지휘했다.

솔리스트로서는 물론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서도 화려한 경력을 지닌 츠베덴은 19세에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불리는 네덜란드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악장으로 임명되어 17년간 악장으로 활동했다. 1996년부터 본격적인 지휘자 활동을 시작한 그는 네덜란드 방송 교향악단 수석지휘자(2005~2013)를 거쳐 명예 지휘자로 임명됐으며, 델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2008~2018)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현재는 계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엔트워프 심포니 명예 지휘자로도 임명된 츠베덴은 2012년 미국의 클래식 전문 잡지 '뮤지컬 아메리카'에서 올해의 지휘자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콘서트헤바우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클래식 전문 잡지 그라모폰에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여 홍콩 필하모닉을 '2019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하기도 했다.



##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1945년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을 연원으로 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첫 음악감독인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했다. 제2대 음악감독인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에 이어 2024년부터 압 판 츠베덴 예술감독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 공연장에서의 공연 외에도 '우리동네 음악회', '광복절 기념음악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파리, 루체른 등에 최초로 진출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한-러 수교 30주년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 3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2022년에는 잘츠부르크, 암스테르담, 빈, 런던 4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 바그너와 브루흐, 쇼스타코비치를 만나다

압 판 츠베덴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1막 전주곡을 시작으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1막 전주곡은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과 더불어 그의 대표적인 관현악곡으로, 바그너 유일의 희극답게 전주곡 역시 화려하고 힘차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협연으로 들려주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19세기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로맨틱하면서 감수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 곡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압 판 츠베덴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1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이번 무대의 협연자인 클라라 주미 강은 우수한 음악성,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로, 2009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샌다이 콩쿠르 우승과 함께 국제무대에 데뷔한 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왔다. 독일의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나 세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주미 강은 이듬해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했으며, 뤼베크 음대에서 자카르 브론에게 배운 후 일곱 살의 나이로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도로서 딜레이를 사사했다. 이후 김남윤 교수 문하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했다.

다섯 살에 함부르크 심포니와의 협연무대로 데뷔한 주미 강은 그동안 바르샤바 필하모닉, 크레메라타 발티카, 마린스키 오페스트라, 벨기에국립교향악단, 스페인방송교향악단 등 유럽 최고의 악단과 협연했으며 라이언 밴크로프트, 안드레이 보레이코, 리오넬 브랑기에, 정명훈, 파보 예르비 등 주요 지휘자들과 협업해 왔다. 최근에는 2022년 데뷔했던 BBC 프롬스에서 티모시 리다우트와 함께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선보였고 LA 필하모닉과는 두 시즌 연속 할리우드 볼에서의 연주를 성료했다. 또한, 앤드류 맨지의 지휘와 함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다

#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상반기 기획공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계획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재)부산문화회관이 2025년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10월 15일 정기회원 선예매를 시작으로 예매에 들어간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25년에도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며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 2025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다

###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신년 무대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1월 4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행사로, 매년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주 공연장인 챔버홀의 시설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 정비된 음향시설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로 활동하는 김동욱이 예술감독을 맡아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올해는 프랑크푸르트 교향악단 종신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린 일레스쿠와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가 1993년 창단한 30년 관록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가 챔버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지난해 개막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스타판 피 재키브, 홍콩필하모닉 비올라 수석 앤드류 링, 길드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클라리네티스트 김윤아가 다시 부산을 찾으며, 아벨콰르텟과 피아니스트 홍민수, 그리고 부산의 젊은 실내악 단체들이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한다.



바이올린 연주자  
플로린 일레스쿠



바이올린 연주자  
김동욱



지휘 요하네스 벨드너

©Lukas Beck



소프라노 조수미

©Sujin Lee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Lukas Beck

(재)부산문화회관이 매년 마련하는 신년음악회도 빠질 수 없는 터, 2025년에는 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을사년 새해를 활짝 열 이번 '2025 신년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한다. 1966년 요한 슈트라우스의 증손인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에 의해 창단된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는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빈 무지크페라인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순회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에 있어서는 최고라 평가받는 지휘자 요하네스 벨드너가 함께 한다.

부산시민회관의 '2025 신년음악회'에서는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 온 싱어송라이터 정태춘, '국악계의 이단아'라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놈놈, 정가 보컬리스트 하운주, 거문고주자 이대하 그리고 경기시나위 사물단원으로 구성된 연희양상블 궁궁, 세계 최초의 택견비보이 트래블러크루가 을사년 희망을 노래한다. 1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이동훈



가수 정태춘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은 1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빈 소년합창단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합창단 중 하나로, 50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하이든, 슈베르트 등 무수한 음악가들이 거쳐 갔으며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고유한 전통과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맑고 청아한 빈 소년합창단의 목소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할 것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빈 소년합창단

©Lukas Beck

## 민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브람스 사이클'부터 해설과 토크가 있는 다채로운 시리즈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은 2025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민간 오케스트라 4개 단체와 함께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시리즈를 진행한다. 브람스는 베토벤, 말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악 작곡가로 꼽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브람스 음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다. 2월 20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제2번'을 시작으로 4월 4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1번'을, 5월 29일 부산네오폰하모닉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하며,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7월 25일 '교향곡 제3번'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뿐 아니라 공연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줄 수준 높은 연주자와의 협연무대도 함께 마련된다.

그동안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티네 콘서트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돌아온다. 깊이 있는 고품격 해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로, 기존 한 낮의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마티네 공연과 함께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이틀간 나뉘어 진행된다. 1월 23일과 24일을 시작으로, 3월 25일과 26일, 7월 24일과 25일, 8월 28일과 29일, 10월 30일과 31일 모두 다섯 차례 진행되며,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입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홍석원 지휘자와 백승현 부지휘자가 관객들을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하는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는 2월 21일과 6월 20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인공은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KoN(콘)으로, 관객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만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가이자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루틴맨'이라는 별명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다.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래 정통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소통해 오고 있다. 바이올린 전공을 살려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하다 점차 영역을 넓혀 집시, 재즈, 탱고, 크로스오버,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KoN(콘)은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로, 집시음악의 종주국인 헝가리에서 최초로 집시음악 콘서트를 가져 화제가 된 바 있다. 2011년부터는 뮤지컬 '모비딕'과 '폐임'의 주, 조연을 맡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에 이어 2024 뮤지컬 '파카니니'에서도 파카니니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 이름만으로도 설렘과 감동을 주다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인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NAC Orchestra)는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5월 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리즈 콩쿠르 우승자인 알렉산더 셸리가 이끄는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대담한 프로그램, 풍부한 스토리텔링, 많은 영감을 주는 예술성 및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아 왔다.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음악가 중 한 명이다.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고



피아노 손정영



지휘 알렉산더 셸리

인홈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연주활동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고전주의 전통을 몸속 깊이 간직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높은 완성도와 탁월한 기교, 지적인 해석으로 바이올린 연주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특히 그는 요아힘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오티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2번’ 등 잊혀진 명곡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 왔으며, 2013년 초연한 외르크 비트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같이 새로운 곡들이 주류 레퍼토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그라모폰지 크리티스 초이스, 황금디아파종상, 미템 어워드 등 주요 음반상을 수상한 테츨라프는 2019년 서울시향의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됐으며 2021/22 시즌 런던 위그모어홀 상주 아티스트, 2022/23 시즌 런던 심포니 ‘포트레이트 아티스트(Portrait Artist)’로 활동하기도 했다. 5월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실내악 음악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에스메 콰르텟(Esmé Quartet)은 6월 5일 부산관광과 첫 만남을 갖는다.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 하유나, 비올리니스트 디미트리 무라스, 첼리스트 허예은으로 구성된 에스메 콰르텟은 지난 2016년, 유학 중이던 멤버들이 독일에서 결성한 후 불과 1년 반 만에 세계적인 권위의 런던 위그모어홀 스트링 콰르텟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독일 포셀 재단 음악상,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선정 HSBC Laureat, 독일 마인츠과 학문학재단과 빌라무지카가 공동 수여하는 한스 갈 프라이

즈(Hans Gál Prize) 대상,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대상, 벽산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콰르텟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롯데콘서트홀, 벨기에 뮤직트로아 페스티벌 등에서 상주 음악가로 활동했다. 에스메 콰르텟은 ‘사랑 받다’라는 뜻을 가진 옛 프랑스어인 팀명처럼 현재 전 세계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에스메 콰르텟

10대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오랜 음악지기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5월 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반가운 재회의 무대를 갖는다. 부산 출신의 김영욱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솔리스트로서 음악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저명한 국제 무대 및 콩쿠르에서의 성공과 함께 국내외 무대에서 종횡무진하며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서로가 함께할 때 서로가 원하는 가장 솔직한 음악을 만든다는 두 솔리스트의 음악적 깊이가 더해진 앙상블 무대로,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린 김영욱

©Shin-Joong Kim



피아노 김다솔

©Holger Tański



### 대중성과 작품성을 잡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두 편의 연극이 부산을 찾는다.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3월 7일과 8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에서 관객과 만난다. 영국의 주목받는 젊은 극작가 던컨 맥밀란의 대표작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슬픔과 아픔에도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7살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배우 한 명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1인극이자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연극으로, 관객들은 배우의 요청에 따라 주인공이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 해주며 자연스럽게 연극에 참여한다.

사랑과 아픔,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랑데뷰'는 4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린 남자 주인공 태섭과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 끝에 옛 장소로 돌아온 여주인공 지희의 교차하는 운명을 다룬 감성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 온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올해 9월 '코레오 커넥션'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국립현대무용단은 어린이 무용극 '얍! 얍! 얍!'으로 부산을 찾는다. 안무가 밝넝쿨·인정주가 안무한 '얍! 얍! 얍!'

은 2024년 5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초연 당시 관객과 언론의 고른 호평을 받으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으로, 다양한 몸짓과 리듬을 통해 어린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의 의미를 그려낸다. 6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독특한 형태의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는 6월 27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는 누군가의 엄마, 딸, 아내로 살아왔던 중년 여성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초연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현대인을 위한 치료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다. '바비레따'는 러시아 말로, 직역하면 '나비 여름'. 여름 끝무렵에서 초가을로 들어서는 2주 정도의 아름다운 계절을 일컫는 말로, 러시아에서는 중년 여성에게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하면 비록 젊지는 않지만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찬사로 이해한다고 한다. 지난 2012년 첫선을 보인 후 1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며 최근까지도 관객참여형 커뮤니티댄스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참여자와 출연자가 감정을 공유, 치유하는 독특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작품을 제작한 '춤추는 여자들'의 안무가 장은정, 최지연, 김혜





속을 비롯하여 ‘멜로가 체질’, ‘콘트리트 유토피아’, ‘윈더폴 월드’에서 호연을 펼친 강애심 배우가 출연, 각자의 경험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관객들과 더불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 압도적 감흥의 포스트 록부터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까지

압도적인 감흥으로 세계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뮤지션 ‘잠비나이’가 4년만에 부산 출신의 록 밴드 ‘미역수염’과 함께 다시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09년 결성된 잠비나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동기인 이일우(기타, 피리, 태평소), 김보미(해금), 심은용(거문고)과 유병구(베이스), 최재혁(드럼) 등 5인으로 구성된 포스트 록 밴드로, 특히 해금, 피리, 거문고 등 한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전통국악과 프리 재즈, 포스트 록, 아방가르드, 하드코어 펑크, 메탈이 뒤섞인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며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2014년 결성된 ‘미역수염’은 최지훈(기타, 보컬), 정주이(베이스, 보컬), 이완기(드럼), 반재현(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게이징, 포스트 메탈, 브레이크이즈, 포스트락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3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박은옥 콘서트는 5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정태춘, 박은옥 부부는 ‘시인의 마을’, ‘촛불’, ‘떠나가는 배’ 등 시 같은 노랫말과 서정적인 곡조의 초기 대표곡부터 음반 ‘아, 대한민국...’, ‘92년 장마, 종로에서’로 대두되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저항을 담은 노래까지 한국현대사를 치열하게 거처온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이자 포크 음악의 선구자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훌쩍 넘긴 두 사람의 대표곡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데뷔 35주년을 맞이한 대중가수 이승환이 3월 29일, 30일 양일간 콘서트 ‘HEAVEN’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올 한해 어린이들과 클래식간의 간격을 좁혔던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3월 15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동요를 클래식 앙상블 연주와 노래로 전하는 ‘키즈송 위드 클래식’이, 5월 3일에는 세계 민속음악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 속 다양한 춤곡을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댄스! 댄스!’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공연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한편, 클래식 음악 감상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회관에서 만나는 특별한 야외 공연 ‘시민뜨락축제’도 2025 봄, 가을에 계속된다.



### 10월 15일부터 정기회원 선예매 시작

2025년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의 티켓은 10월 15일 오후 2시 정기회원 선예매를 시작으로 16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4 시민뜨락축제**

9월 27일(금)-10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날라리와 쟁이



하퍼스



갯츠

(재)부산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야외축제 ‘2024 시민뜨락축제’가 9월 27일부터 5주동안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평일 낮,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상반기 축제에서도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합창, 국악 등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축제에서는 9월 27일, 부산시립합창단, 팝페라 듀오 ‘휴[HUE]’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연주팀이 한낮의 휴식과도 같은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사회는 부산MBC 아나운서인 김동현 아나운서가 맡아 능숙한 진행과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4일에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국악밴드 ‘날라리와 쟁이’, 대한민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이 관객과 만난다. ‘날라리와 쟁이’는 태평소(날라리)와 아쟁(쟁이)을 중심으로, 새로운 레퍼토리로 대중과 만난 연주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과 현대

의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10월 11일에는 3인조 로커빌리 밴드 ‘하퍼스’와 ‘이병주 밴드, 보컬 선정’이 무대를 장식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음악 장르인 ‘로커빌리(Rockabilly)’는 흑인의 리듬 앤드 블루스(R&B) 형식과 멜로디에 백인의 컨트리 리듬이 합쳐진 음악으로,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버디 홀리 등이 있다. ‘이병주 밴드’는 색소포니스트 이병주를 중심으로 피아노 민주신, 베이스 김대경, 드럼 시게키 오쿠보 등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뮤지션들이 모인 밴드로, 이번 무대에서는 보컬 선정과 함께 재즈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10월 18일에는 손, 차차, 맘보, 살사 등 다양한 라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부산 유일의 라틴 재즈 빅밴드 ‘갯츠’와 라틴댄스 전문 퍼포먼스팀 ‘살사핏’의 무대로, 정열적인 쿠바의 전통 음악과 라틴 재즈, 라틴 댄스를 만날 수 있다. ‘시민뜨락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현미밴드’와 밴드 ‘휴고(Hype Unity Groove Orchestra)’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음악인과 연극인이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현미밴드’는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추구하며, 밴드 ‘휴고’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들의 독특한 사운드와 음악적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 바흐 프로젝트, 그 위대한 서막

#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10월 17일 부산을 찾는다.

캐나다의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호넨스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손민수는 이후 북남미와 유럽, 이스라엘과 한국의 주요 콘서트홀과 페스티벌 연주들을 통해 눈부신 음악적 활동을 펼쳐나갔다. 뉴욕 카네기홀, 보스턴 심포니홀, 토론토 글렌 굴드 스



©Shin-joong Kim/MOC

튜디오, 오타와 국립예술센터, 클리블랜드 세브란스홀 등 수많은 북미 주요 무대에 올랐으며 뮌헨 가스타익, 벨기에 팔레 데 보자르,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론극장 등에서 연주한 바 있다. 보스턴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퀘벡 심포니,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로렌스 레서, 수렌 바그라투니, 강동석, 조영창, 아비브 콰르텟 등과 함께 연주하였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시적인 상상력을 가진 진실하고 사려깊은 피아니스트'라고 칭했으며, 그의 바흐 음반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명료하며 빛나는 해석을 가진 음반'이라는 평과 함께 그 해 최고의 클래식 음반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보스턴 글로브는 '그는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표현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헤럴드는 그의 콜론극장 연주에 대해 '진정한 비르투오소'라고 평하며 그 해 아르헨티나에서

의 최고의 연주 중 하나로 꼽았다.

손민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건반 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과 변화경 교수로부터 오랜 가르침을 받았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23년 9월부터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호넨스 국제콩쿠르, 노르웨이의

탐오브더월드 국제콩쿠르, 이탈리아의 부조니 콩쿠르 등 권위있는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오랜 시간 깊이있게 음악을 연구하는 전곡 연주로 유명한 손민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과 함께 전곡 앨범을 발매했으며 2022시즌에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지난해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과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전곡을 연주했다. 이번 무대는 바흐를 향한 여정의 서막으로, 바흐의 '전주곡과 푸게타 사장조'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려준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아리아로 시작해서 서른 개의 변주곡을 거쳐 다시 아리아로 돌아오는 영원회귀의 음악으로, 바흐가 일생의 음악적 정수들을 철저히 계산해 엮은 하나의 음악적 건축물과도 같은 곡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7회 정기연주회

##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자이자 지휘자, 교육 행정가로 국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이끌어온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이 지휘하고 창작 국악

관현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리꾼 박애리가 사회와 해설을 맡아 박범훈의 음악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고 정선희(소리), 방병원(해금), 김지현(25현가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정 박재현, 팽과리 이주현, 장구 최오성, 북 최정욱)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외에도 부산시립무용단 김주연, 그리고 KNN방송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 단원인 박지수, 댄스 스포츠팀 '팀 빈체로'가 협연자로 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꾸며준다.

지휘자 박범훈은 한국 창작음악의 토대를 다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끈 인물로, 그가 걸어온 길을 표현할 때면 늘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음악총감독에 이어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총감독 및 작곡, 지휘, 2002 부산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작곡에 참여하여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지휘 박범훈



사회 박애리



소리 정선희



해금 방병원



25현가야금 김지현



살풀이 김주연



콘트라베이스 박지수

우리 음악의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1993년에는 중국, 일본의 민족 오케스트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했다.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단장 및 예술감독, 2005년 중앙대학교에서 국악인 최초로 대학 총장을 맡아 화제가 된 박범훈은 현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작국악관현악에 있어서도 큰 족적을 남긴 박범훈은 이번 무대에서 그가 작곡한 수백 개의 창작곡 중에서 국악관현악 '푸살'을 비롯해 해금 협주곡 '가리잡이', 댄스스포츠를 위한 국악관현악 '왈츠-탱고-자이브', 25현가야금 협주곡 '새산조',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놀이'를 들려준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 연주되는 '푸살'은 경기 시나위의 핵심적인 가락을 21세기 국악관현악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정선희의 소리와 김주연의 살풀이가 함께 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쳇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9세기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전설적인 트럼펫의 대가 쳇 베이커의 특별한 만남 '쳇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가 10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라흐마니노프의 기교 넘치는 피아노 연주와 쳇 베이커의 구슬픈 트럼펫 선율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두 음악가들의 매력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도 꼽히는 라흐마니노프는 낭만주의 정수를 보여주는 선율적 풍부함과 서정적 표현으로 올림과 동시에 긴 여운을 던져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꼽히고 있다.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명인이자 쿨 재즈를 대표하는 쳇 베이커는 낭만적이면서도 울적한 분위기의 트럼펫 연주와 중성적 음색의 노래,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는 방탕한 인생사로 유명하다.

서로 관련이 전혀 없을 거 같은 두 아티스트의 접점은 쳇 베이커가 1977년 연주한 그의 명곡 'You Can't Go Home Again'으로 연결된다. 이 곡은 그의 동료였던 돈 세베스키가 쳇 베이커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에서 테마를 가져왔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은 그가 앞서 작곡한 '교향곡 제1번'에 대한 후평으로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라흐마니노프가 글린카 상을 수상하며 절망감을 극복하게 된 작품으로 유명하다.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1부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칼리제 작품 34'를 시작으로 재즈 감성이 담긴 'Elégie', 그리고 '교향곡 제2번' 3악장을 들려준다.



쳇 베이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부에서는 배우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 OST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Everything Happens to Me'와 우울했던 쳇 베이커의 지난날을 담은 듯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쳇 베이커의 사랑이야기 'I Fall in Love Too Easily' 외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대표곡 'My Romance',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That Old Feeling', 그리고 'You Can't Go Home Again'을 들려준다.

두 음악가의 낭만적인 선율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정환호,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수, 첼리스트 박건우, 베이스 트 이동민, 트럼페터 박준규, 드러머 허예찬이 빈틈없는 호흡으로 원곡에 신선한 매력을 더하며 깊은 여운을 전한다. 특히 피아니스트 정환호가 공연 해설을 맡아 관객들이 곡들을 더욱 손쉽게 음미하고 깊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끈다.

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 舞歌 용호상박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그동안 레퍼토리 시리즈를 통해 한국춤 본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춤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판소리 '적벽가'와 한국춤의 만남 '舞歌 용호상박'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용호상박'은 지난 2021년 부산시립무용단의 신작 레퍼토리로 첫 선을 보인 후 이듬해 재공연과 지난해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보여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한국춤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 작품은 2014년 '국수호의 춤의 귀환'에서 초연되었던 남성 협무(2인무)로, 당시 한국무용을 대표하는 국수호와 이정윤이 30년의 세대를 초월하는 2인무로 크게 주목받았으며 판소리 '적벽가'에 맞춰서 안무되고 연무되면서 전통과 창작무용계에 큰 이슈를 가져온 작품이다. 이후 이정윤 예술감독이 2021년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춤 '본색'에서 장편화된 무가 '용호상박'을 선보인 후 무용계를 비롯한 부산의 무용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가 되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스타프들이 참여하여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위', '한국무용 결작의 탄생' 등 많은 찬사와 평을 받은 작품으로, 국내외 공연예술 마켓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舞歌 용호상박' 역시 한국 창작무용계의 거장 국수호와 이정윤 예술감독이 연출, 안무를 맡아 대립과 분쟁의 허무함과 전쟁의 공허함을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로 담아 공과 화합의 시대에 놓인 우리들의 초상을 표현한다. 특히 '舞歌 용호상박'은 가무악을 갖춘 한국전통형 오페라로, 한국 전통 판소리 5마당 중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한승석이 작창하고 이에 김태영 음악감독이 12인의 고수와 연주단의 라이브 연주로 극대화 한다.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디자이너 이태섭, 의상디자이너 김지원, 영상디자이너 김장연, 조명디자이너 김익현, 비주얼디렉터 양동민의 예술세계와 감각으로 탄생한 완벽한 무대가 관객들 앞에 펼쳐진다.

한편,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부산시립무용단은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우리 춤을 계승, 발전시키며 부산은 물론 한국 무용계를 선도해오고 있다. 현재 이정윤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공연과 기획으로 춤 예술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우리 춤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레퍼토리의 개발과 축적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V

## 2024 현대합창의 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특별한 무대 ‘2024 현대합창의 밤’이 11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이기선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선보여온 해설이 있

는 현대 합창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로, 현재 활동 중인 현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우면서도 실험적인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만 진행되는 순수 합창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부산시립합창단만의 깊고 넓은 울림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외국 현대 합창음악으로 꾸며진다. 첫 곡은 미국 루이빌 오케스트라의 2023-2024 시즌 크리에이터스 콤스(Creators Corps) 멤버이자 상주 작곡가로 활동 중인 알렉스 베르코의 ‘Exodus(탈출)’를 들려준다. 1995년생인 그의 음악은 ‘감동적’(뉴욕타임즈), ‘매혹적’(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그리고 ‘무장 해제시키는 아름다움’(Textura)으로 평가받으며, 유수 오케스트라 및 실내악단,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고 있다. 이번 ‘Exodus(탈출)’는 작곡가가 ‘전염병’에 대한 개인적인 ‘캐럴’을 작곡해달라는 요청에 창작한 곡으로, 구약성경의 기도문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이다.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을까?’라는 시인 바바라 크로커의 질문에 8개의 악장으로 대답한 데일 트럼보어의 ‘How to Go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On(어떻게 가야하나)’, 인종차별에 반하는 의도로 작곡된 사라 보바의 ‘Carols After a Plague(대재앙 후의 노래)’가 연주된다.

한국 창작 합창으로 꾸며지는 2부 무대에서는 현대합창 외에도 민요와 가곡,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현대합창곡으로는 작곡가 손정훈의 무반주 합창곡 ‘마당쓰는 소리’(손정훈 시)와 ‘콩자반’(도중환 시)을 만날 수 있다. ‘마당쓰는 소리’는 ‘사악 사악’이라는 비질 소리가 곡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변주되며, 도중환 시인의 시를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콩자반’은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요소들이 곡의 익살스러움을 더해준다.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 ‘강강술래’, ‘아리랑’(진규영 편곡), 한국가곡 ‘내 맘의 강물’(이수인 곡, 진한서 편곡), 그리고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 ‘흔들리는 꽃들속에서 네 삼푸향이 느껴진거야’(장범준 곡, 손정훈 편곡)에 이어서는 가을의 정서를 담은 가요 세 곡 ‘잊혀진 계절’, ‘가을 아침’, ‘깊은 밤을 날아서’를 하나의 메들리로 엮어 합창곡으로 편곡한 ‘가을을 잇다’(손정훈 편곡)로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느껴본다.

# 음악으로 전하는 가을 인사

## 부산시립교향악단 10월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Ⅳ '줌인(Zoom-in)'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4회 정기연주회  
'England'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10월 25일 펼쳐진다.

### 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엘가와 드보르자크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18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첼리스트 이상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과 걸작으로 꼽히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과 보헤미아적인 색채가 가장 두드러지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엘가가 남긴 유일한 첼로 협주곡이자 낭만주의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첼로 협주곡의 걸작으로, 초연 실패 후 한동안 잊혀지는 듯 했으나 첼리스트 자클린 뒤 프레가 연주한 후 재평가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협연을 맡은 이상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후 도미, 커티스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윤이상국제콩쿠르 외에도 요한스국제콩쿠르 1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대상, 중앙음악콩쿠르 1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2위를 수상하며 국내외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발굴한 미국의 Young Concert Artists International Audition에서 우승한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YCA(Young Concert Artists) 소속 아티스트로 미국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만 10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시작으로 금호영재를 거쳐 KBS 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수원시향, 광주시향, 천안시향, 부천필하모니, 경기필하모니, 원주시향, 전주시향, 창원시향, 서울챔버 등 국내의 주요 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수많은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은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



지휘 홍석원 ©황필주

홍석원 신임 예술감독과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9월 취임연주회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신임 예술감독으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던 홍석원 지휘자는 11월 7일 제61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엘가와 드보르자크 곡을 들려준다. 이에 앞서 10월 11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줌인(Zoom-in)' 무대가 열린다. 이밖에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지역 유망주들에게 협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

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10월 25일 펼쳐진다.



교 영재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에 출강하며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올해로 서거 120주기를 맞은 체코의 국민 작곡가이자 민족주의 대가인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8번은 깊은 서정성과 함께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작곡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드보르자크의 완숙미를 느껴볼 수 있다.

- 지휘: 홍석원(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첼로: 이상은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첼로 이상은

### 첼로와 피아노의 감미로운 앙상블

부산시향의 ‘쥬인’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특히 스타성이 높은 단원을 재조명하고 유명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해 격조높은 실내악 음악을 들려준다. 올해로 두 번째 무대인 이번 무대에서는 첼로 수석 이일세와 2021년 독일 본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피아니스트 서형민의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이일세는 14세때 빈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이후

세계 유명 연주자들을 사사하며 솔리스트 및 실내악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베토벤을 비롯한 하이든, 모차르트 등 빈 고전시대와 슈만, 브람스, 드보르자크 등 전통 낭만시대 전문 연주자로 평가받았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근·현대 음악들과 바로크 첼로를 통한 시대음악 연주 또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외에도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된 앙상블인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로 활동하며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오스트리아 빈의 가장 오래된 하계 음악아카데미인 Wiener Musik Seminar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형민은 1990년생으로 4살이 되던 해에 피아노를 시작, 8살의 나이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10살에 도미, 미국 메네스 음대 예비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1년 ‘뉴욕 필하모닉 영아티스트 오디션’ 우승, 11세의 나이로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2008년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2013년에는 제5회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 및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201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2017년 ‘헤이스팅스 국제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 2위, 2018년 ‘리나 살라 갈로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2위 입상한 서형민은 2019년 ‘G.B.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2021년 독일 본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우승하며 슈만 특별상, 실내악 특별상, 협주곡 청중상까지 동시 수상한 그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마스터과정을 마치고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는 글라주노프 ‘음유시인의 노래’와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40’,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9’를 들려준다.

- 첼로: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 피아노: 서형민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첼로 이일세



피아노 서형민

## 경성 뱀파이어부터 셰익스피어까지

# 부산 찾는 세 편의 화제작

### 뮤지컬 '배니싱'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13세 이상 관람가)



### 연극 '이단자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10세 이상 관람가)



### 뮤지컬 '월리엄과 월리엄의 월리엄들'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3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10세 이상 관람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세 편의 연극이 부산을 찾는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올해 선택한 창작뮤지컬 '배니싱', '월리엄과 월리엄의 월리엄들', 그리고 연극 '이단자들'이 그 주인공으로, 저마다 다른 참신한 소재와 짜임새 있는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연극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부산 무대는 올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2024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공모에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원하고 선정됨으로써 이뤄졌다.

### 경성시대 뱀파이어를 만나다

#### 창작뮤지컬 '배니싱'

뮤지컬 '배니싱'은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경성을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는 뱀파이어 '케이'와 사라지고 있는 의학도 '의신', 그리고 사라지기를 두려워하는 '명렬'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성 시대의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소재와 영원의 삶과 순간의 삶을 다룬 매력적인 스토리, 그리고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3인조 라이브 밴드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트라이아웃 공연(장기공연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평단과 관객의 반응을 살피면서 작품을 다듬어가는 단계의 공연)에 이어 이듬해



배니싱

본 공연 후 2022년까지 4연을 거친 '배니싱'은 2023년 중국 상해에서 라이선스 공연까지 진행하며 작품성, 대중성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인정받았다.

이번 부산 첫 여정에서는 '케이'役に 김종구, '의신'役に 박규원, '명렬'役に 김찬중 등 대학로에서 사랑받고 있는 세 배우가 함께 한다. 또한 2회차(저녁 6시) 공연 이후에는 세 배우와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 맹목적인 지구위기에 유쾌한 반기를 들다

#### 연극 '이단자들'

극단 사개탐사의 대표 레퍼토리 연극 '이단자들'은 맹목적인 지구위기에, 환경운동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이단자들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2013년 초연 당시에는 ‘인위적 온난화에 과학적 반기를 든다’는 색다른 소재와 연기파 배우 서이숙을 필두로 한 독특한 캐릭터, 짜임새 있는 구성 및 연출력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2020년 9월 국내 관객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번안·각색되어 재공연된 후 2021년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연극 ‘이단자들’은 극단적 환경운동가, 자본과 교육의 유착, 대학 내 갑질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증을 가진 현대인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는 ‘이단자’가 되더라도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김난희, 최명경뿐 아니라 신문성, 안병준, 정민주, 김현수가 새롭게 합류하여 격조 높은 앙상블을 보여준다.

###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사기극 창작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올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또다른 작품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 투어공연을 통해 부산시민과 만난다. 18세기 말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사기극’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공개된 ‘보르티게른(Vortigern and Rowena)’의 진실과 그 뒤에 숨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작을 발표한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미지의 신사 H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인정, 부와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그려낸다. 작품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헨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성찰의 기회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서정적인 선율, 유려한 안무, 재치 있는 블랙코미디가 어우러져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무대가 펼쳐진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동반사업 ‘데뷔를 대비하라’ 쇼케이스부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작품으로, 2021년 전막 낭독공연을 거쳐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창작뮤지컬 분야에 최종 선정된 후 2023년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일본 ‘선라이즈(Sunrise)’ 제작사가 논-레플리카(Non Replica,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원작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각색, 번안 등을 허용하는 공연) 버전으로 일본 도쿄 파르티논 다마 대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선보인 후, 효고 현립 예술 문화센터 한큐 중극장과 도쿄 선사인 극장에서 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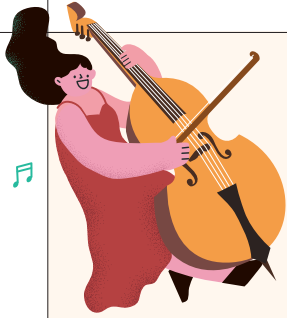
드라마틱한 실화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진 흥미진진한 대본과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부산을 사로잡을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 김수용, 김지철, 김지웅이 함께 한다.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청년 예술인의 열정과 만나다

2024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ZZH(째)



판플



공백(ACCORD)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4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팀이 작품제작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관객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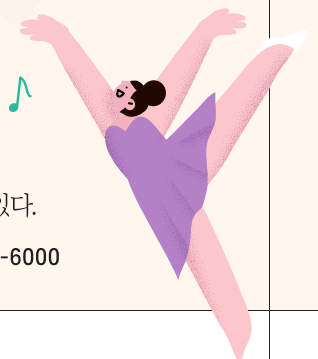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예술대학 폐과 위기 등 지역대학의 어려움으로 기초예술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창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예술현장 진입을 돕기 위해 처음 마련됐으며, 올해부터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도전적인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새로운 기술, 장르간 융합 등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대학생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창작 제작’과 전문예술인(단체)과의 작품활동을 통해 예비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참여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창작 제작’ 지원분야에서는 공연 부문으로 스테리우스의 음악극 <엄마의 일기장>, ZZH(째)의 창작관소리 <필, 연(蓮)>, 이우민 연출의 다큐멘터리 <떠나는 사람들>, 오페라 <코지 판 투테>가, 전시 부문에서는 <공백(ACCORD)>, <PinHole(HOLE)>이 선정됐다. ‘참여 활동’에서는 그로우포뮤직 <에드바르의 초상수업>, 문화예술 ‘올-타’의 PPP(PUSAN PIRI PROJECT) <도약>, 판플 <BIRTH>,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과 부산 대학생들의 <MoZart> 프로젝트 등 네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스테리우스 음악극 <엄마의 일기장>은 엄마가 쓴 일기를 통해 엄마의 삶을 재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통해 엄마의 삶과 희생을 이해하는 음악극이며, ZZH(째)의 <필, 연(蓮)>은 가사 전달이 온전치 않은 고어(古語) 대신 동시대성이 드러나는 언어로 해석한 창작관소리로, 기악 연주와 더불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이우민 감독의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사라짐’을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자, 청년들의 고민을 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담아낸 기록물이며,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부산의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그로우포뮤직의 <에드바르의 초상수업>은 ‘에드바르 뭉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의 삶을 다채로운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뭉크의 명화 10점을 음악과 함께 선보인다. 판플의 <BIRTH>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범죄 메타 드라마이며, 문화예술 ‘올-타’의 PPP(PUSAN PIRI PROJECT) <도약>에서는 전통악기인 피리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또, 부산 대학(원)생 연주자와 기성 연주자가 함께하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과 부산 대학생들의 <MoZart> 프로젝트에서는 협주곡, 교향곡 등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무료 •문의/(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2024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 [창작제작 지원분야]

공연

스테리어스 <엄마의 일기장>

10. 10.(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ZZH(재) <창작판소리 - 필, 연(蓮)>

10. 13.(일)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이우민 <떠나는 사람들>

12. 10.(화) 18: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시

공백(ACCORD)

11. 6.(수) ~ 11. 8.(금)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PinHole(HOLE)

11. 6.(수) ~ 11. 8.(금)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창작제작 중·대규모 지원분야]

공연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1. 22.(금) ~ 23.(토) 평일 19:30 주말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참여활동 지원분야]

공연

그로우포뮤직 <에드바르의 초상수업>

10. 17.(목)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화예술 '올-타' <PPP(PUSAN PIRI PROJECT) 도약

11. 22.(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판플 <BIRTH>

11. 1.(금) ~ 11. 3.(일)

평일 19:30 주말 16:00 전포와일드클럽

부산솔로이스츠양상블과 부산 대학생들과의

<MoZart> 프로젝트

12. 1.(일)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0월에 떠나는 문화 나들이

**2024 부산비엔날레** 8월 17일(토)-10월 20일(일)

**부산원먼스페스티벌 2024** 10월 1일(화)-31일(목)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2일(수)-11일(금)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0월 4일(금)-8일(화)

**제61회 부산예술제** 10월 5일(토)-27일(일)

**제20회 부산국제합창제** 10월 23일(수)-26일(토)

문화의 달 10월, 풍성한 가을걷이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24 부산비엔날레'가 지난 8월 17일 개막식을 가진 후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소공연장에서 한 달간 펼쳐지는 릴레이 콘서트 '부산원먼스페스티벌 2024'가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연다. 또,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인 '제20회 부산국제합창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 '제61회 부산예술제', 그리고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축제형 공연예술마켓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까지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그 어느 해보다 늦게 찾아온 가을,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가을 나들이를 떠나보자.

# 한 달간의 부산음악 여행

## 부산원먼스페스티벌 2024

우리 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4TH

문의: (사)부산소공연장협의회 557-3369, <http://omf.bsaha.or.kr>

10월 한달간 부산지역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릴레이 콘서트 ‘부산원먼스페스티벌 2024’가 부산의 가을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물들인다.

‘부산원먼스페스티벌’은 지난 2022년,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예술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로, 올해는 7월에 이어 10월 두 번째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예술가들이 스텝 없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부산의 15개 구·군, 31곳의 소공연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간별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기획공연이 무대에 오르면서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퓨전국악, 재즈, 밴드, 포크 등 관객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성찬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가칭 부산소공연장 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민간운영체의 소공연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반을 제공,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매개공간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

서왔다. 현재 김은숙 대표가 있는 스페이스 움을 비롯하여 12곳의 공연장이 회원 소공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1일(화)

1일(화) 오후 7:30 공간523

### The Letter, 더 레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작곡가들의 다양한 편지와 그와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주는 브리즈온 앙상블의 특별한 무대.

•연주: 우다연, 이현진, 노태호, 김시현



10월 2일(수)

2일(수) 오후 7:30 cafe0101

### 헤이브(HAVE)와 함께하는 'Have hope' 콘서트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 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내는 국악그룹 헤이브의 무대.

•소리: 박세미 •피리: 임진희 •장구: 이현서  
•첼로: 성아란 •피아노: 김시은 •무용: 김지혜



10월 3일(목)

3일(목) 오후 6:00 BFGC 음악홀

### The Song of Polyphony

2005년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클래식기타 듀오로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폴리포니기타듀오의 무대.



10월 4일(금)

4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움

###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4집 '가을바람' 쇼케이스

재즈에 국악을 가미한 한국적인 재즈음악을 선보이는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의 무대.

•피아노, 작곡, 편곡: 하지림  
•보컬: 박선우, 문소진 •판소리: 안희주  
•피리: 김혜지 •클래식기타: 고충진 •베이스: 신세영 •드럼: 김우진



10월 5일(토)

5일(토) 오후 5:00 게네랄파우제

### GP양상블 '애가'

2017년 게네랄파우제에서 출범한 GP양상블의 무대로, 라흐마니노프와 그의 스승 차이콥스키의 '비가' 연주를 들려준다.

•바이올린: 정진경 •첼로: 김경수  
•피아노: 강대현



10월 6일(일)

6일(일) 오후 4:00 광안리남매

### 효정리 Band 'Musician's Pick(숨은 재즈 명곡 알리기)'

숨은 재즈 명곡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Musician's Pick'으로, 빌리 할리데이, 해리 스위츠 에디슨 등 효정리 밴드가 픽한 재즈곡을 직접 들려준다.

•보컬: 이효정 •피아노: 김대규 •베이스: 김대경 •드럼: 피오토르 파블락



10월 7일(월)

7일(월) 오후 3:00 더락

**Come Together**

팝과 재즈를 펑키, 라틴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인스트루먼트 밴드 Freeport의 무대.

- 베이스: 허진호 •기타: 최성준
- 색소폰: 김승모 •드럼: 황준혁



10월 8일(화)

8일(화) 오후 7:30 가람아트홀

**제499회 가람초청음악회 'Lieto 세 번째 정기연주회'**

2021년 창단 후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쓴 앙상블 리에토의 무대.

- 바이올린: 정은주 •첼로: 이현아
- 피아노: 박나희



10월 9일(수)

9일(수) 오후 7:30 공간갯츠

**민주신트리오 2집 앨범 'WAVE SUBSIDES' 발매기념 쇼케이스**

네덜란드 유학파로 최근에는 일본으로도 연주 영역을 넓히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과 베이스리스트 김대경, 그리고 일본인 재즈드럼 연주자 오쿠보 시게키로 구성된 민주신트리오의 무대.



10월 10일(목)

10일(목) 오후 7:30 BOF아트홀

**루나-LUNA**

피아노3중주와 피아노·바이올린 듀오, 성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소프라노: 윤장미(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대표)
- 첼로: 정혜주 •피아노: 이수민
- 퍼포먼스/화가: 엄경근(엄삼룡 대표)



10월 11일(금)

11일(금) 오후 7:30 무사이

**Hathaw9y Unplugged**

2020년 데뷔한 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팝 밴드 헤서웨이의 무대.

- 기타, 보컬: 강키위 •드럼: 최세요
- 베이스: 이특민



10월 12일(토)

12일(토) 오후 5:00 비바아첼 챔버홀

**라이크앙상블 'Do you LIKE Brahms?'**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해설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이현우, 비올리스트 김명복, 첼리스트 조명환, 피아니스트 정은정의 연주로 클라라와 슈만, 브람스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하고 각자가 사랑하는 감정을 실어 만든 실내 악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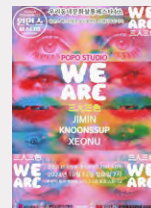


10월 13일(일)

13일(일) 오후 7:00 포포 스튜디오

**WE ARE(우리는)/Three colors**

기타·보컬 지민(밴드 헤이 유니즌), 싱어송라이터 선우(XEONU), 싱어송라이터 권눈썹 등 부산의 여성 3인 싱어송라이터의 라이브 무대로, 소통을 위해 관객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10월 14일(월)

14일(월) 오후 7:00 아이러브스페이스

**4인4색 희망 콘서트**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유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루체문화컴퍼니의 무대로, 한국 가곡부터 이탈리아, 독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들려준다.

- 테너: 김경민, 신대현 •소프라노: 박보희, 박은경
- 피아노: 김아영



10월 15일(화)

15일(화) 오후 9:00 리얼라이즈

**리얼라이즈 '아크라이트' 라이브**

음악의 배(Ark)를 타고 빛(Light)을 찾아 모험하는 소프트 록 밴드 아크라이트의 무대. 그들의 EP와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비롯하여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커버곡들을 들려준다.

- 기타: 윤승환 •보컬: 김묘선 •베이스: 김병준 •드럼: 송지원



10월 16일(수)

16일(수) 오후 7:00 아포지테라스

**오페라 토크 콘서트 '사랑의 묘약'**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주요 아리아 중창으로 들려준다.

- 테너: 김은교 •소프라노: 노연수
- 피아노: 전지호



10월 17일(목)

17일(목) 오후 7:00 카페진목

**콘서트 '부산 옛 음악의 향기'**

2019년 결성된 퓨전 클래식 앙상블인 도담양상블의 무대로,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가요를 들려준다.

- 편곡/사회: 강현민 •플루트: 조다은
- 클라리넷: 강철주 •피아노: 손안나
- 바이올린: 김민화 •첼로: 정혜주



10월 18일(금)

18일(금) 오후 7:30 금정아트홀

**Love Note - 사랑에 대한 기록**

팔레트에 놓인 다채로운 색깔의 물감처럼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모여 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적 색채와 감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튜디오 팔레트의 무대.

- 플루트: 박한나 •클라리넷: 이효주 •해설·색소폰: 우다연
- 첼로: 윤주연 •더블베이스: 박예송 •피아노: 박지은





10월 19일(토)

19일(토) 오후 4:00 구박갤러리  
골목미술관에서 만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회

Art Creative Group 'JAMGGUT(잼갯)'이 선보이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회로, 우리에게 친숙한 지브리 음악을 들려준다.

- 해설, 바이올린: 미카
- 바이올린: 이다솜
- 첼로: 김혜지
- 피아노: 주은정



10월 20일(일)

20일(일) 오후 7:00 오션컬처팩토리  
카페인 프로젝트 'I need caffeine'

재즈 밴드 '홍영호 콰텟'과 보컬리스트 다히가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카페인과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 작곡, 드럼: 홍영호
- 피아노: 강혜인
- 보컬: 다히
- 베이스: 황대웅
- 기타: 김경모



10월 21일(월)

21일(월) 오후 7:30 콘체르트보눔  
일본연주 듀오 Piu 초청콘서트 'Mate'

테너 류무룡, 소프라노 김지현으로 결성된 힐링뮤지션 휴[Hue]와 일본의 정상급 만돌린 연주자 타카하시 카즈히코, 피아니스트 나츠카와 유기코의 듀오팀인 PIU와의 콜라보 무대.



10월 22일(화)

22일(화) 오후 7:00 유정1995  
Let's start

2023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에서 입상 후 알바루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무대로, 시작에 대한 설렘과 성장, 우여곡절과 그에 대한 위로를 알바루체만의 음악으로 풀어본다.

- 플루트: 남유빈
- 보컬: 김여진
- 피아노: 조예림



10월 23일(수)

23일(수) 오후 8:00 노가다  
국악그룹 뜨락 '뜨거운 열정의 풍류'

전통과 컨템포러리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옛 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국악그룹 뜨락의 무대.

- 소리: 김다솜
- 피아노: 이수민
- 피리: 안하윤
- 해금: 이유민
- 대금: 고현아
- 타악: 안유진



10월 24일(목)

24일(목) 오후 7:00 음악당라운  
Film Music: Thema 'Love'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앙상블 원잇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 피아노: 이안나
- 바이올린: 서혜은
- 바이올린: 강소연
- 비올라: 나윤채
- 첼로: 윤주연



10월 25일(금)

25일(금) 오후 7:30 필슈파스  
앙상블 루치아 정기연주회 '사계'

바이올리니스트 심해수, 심치민, 심채영, 비올리스트 박수정, 첼리스트 윤지영으로 구성된 앙상블 루치아의 무대. 실내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10월 26일(토)

26일(토) 오후 6:00 금사막  
헤드터너 'Waves of Emotion'

하드락 밴드 헤드터너의 앨범 수록곡 중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과 커버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기타: 장재호
- 베이스: 김진재
- 보컬: 김나인
- 키보드: 김세준(세션)



10월 27일(일)

27일(일) 오후 4:00 기타고라스  
기타리스트들의 수다

클래식기타리스트 이승기, 박승웅, 이윤정, 배윤진, 신성진, 윤병용 등 여섯 명의 기타리스트들이 연주와 함께 기타와 삶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타리스트들의 수다'.



10월 28일(월)

28일(월) 오후 7:30 스페이스 수정  
October Movie Date

힐앤힐스 뮤직 앙상블의 무대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 박수현
- 바이올린: 김상희
- 첼로: 심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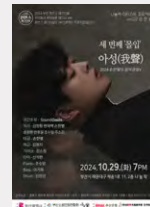


10월 29일(화)

29일(화) 오후 7:00 나들락  
손한별의 음악공방 V '세 번째 물입-아성(我聲)'

삼현육각 대금 이수자이자 제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손한별의 '음악공방'.

- 대금, 소금, 단소: 손한별
- 해금: 김원지
- 가야금, 양금: 김소정
- 타악: 신석현
- 피아노, 작곡: 조수임
- 아코디언: 이지혜



10월 30일(수)

30일(수) 오후 7:00 음악풍경  
앙상블 프로뮤지카 '시월의 마지막 밤 즈음에'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전속악단인 프로뮤지카의 무대. 소프라노 왕기현, 신하람, 테너 양승엽, 바리톤 김경환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한다.

- 피아노: 김현정



10월 31일(목)

31일(목) 오후 7:00 BNK부산은행갤러리  
위너스앙상블의 '잊혀진 계절'

소프라노 장은영,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준연, 바리톤 강경원 등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4명의 혼성 앙상블팀인 위너스 앙상블과 게스트 합창단들이 함께하는 무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부산을 픽(PICK)하다

##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745-7232, www.bpam.kr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하 BPAM·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은 올해 한층 더 풍성해진 무대로 돌아온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BPAM은 올해 '부산을 픽(PICK)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0월 4일부터 5일간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학교, 남구 문화골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BPAM은 공연예술상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 연극, 음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첫 해였던 지난해는 국내외 예술인(팀)의 작품 92편이 참여했으며, 당시 공연예술 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부산을 찾았다.

올해 BPAM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은 BPAM 예술감독단이 선정한 공식 초청 작품을 선보이는 '비팜 초이스'와 '비팜 쇼케이스', 그리고 전도유망한 미래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견하는 '비팜 넥스트스테이지',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질 부산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비팜 스트리트', 부산에서 열리는 10월 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협력작품 '비팜 링크'로, 총 200여 편의 작품이 부산 곳곳에서 공연된다. 전막 공연인 '비팜 초이스'와 달리 '비팜 쇼케이스'는 20분 내외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는 쇼케이스 무대로, 올해는 8편의 전막 공연과 32편의 쇼케이스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마켓의 기본 취지에 맞게 해외유통에 유망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거나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창제작과 협업, 융합이 가능한 작품,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상상력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미래 가치가 높은 작품들로 채워졌다. 대표적으로는 세계 아트 서커스의 화제작인 캐나다 마신 드 시흐크(Machine de Cirque)의 '라 갈러리(La Galerie)'가 BPAM 개막작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무용과 음악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무용수가 함께 만든 '고르니슈트(GORNISHT)', 독일과 한국의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두 팔을 벌려서(Open your arms)'가 이번 무대를 통해 초연된다. 또한 연극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창작공연 '뮤지컬 1976 할랄카운티'가 해외 진출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

작품의 유통 판매에 주력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도 펼쳐진다. 공연예술단체의 작품 및 공연예술기관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정보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팜 부스'와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공연산업관계자)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지는 '비팜 데이트',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비팜 나이트'가 마련되며, 공연예술의 전망과 작품 유통에 관한 '비팜 세미나'도 펼쳐진다.

올해 주 행사가 펼쳐질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에는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된 '2024 부산젊은건축가 파빌리온 공모작품'이 설치된다. 시민들은 10월 5일과 6일,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개·폐막식은 10월 4일과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개·폐막공연으로는 '라 갈러리'와 '고르니슈트'가 선정됐다.

### 마신 드 시르크 '라 갈러리' [개막작]

10월 4일(금) 오후 7:30, 6일(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서커스가 미술관에 쳐들어갔다!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서커스 공연을 통해 아찔한 기교, 강렬한 감성, 서정성, 지적 유희, 그리고 유머를 선사하는 마신 드 시르크의 '라 갈러리'.



개막작 라 갈러리

### 비팜 프로젝트 밴드 '두 팔을 벌려서'

10월 5일(토)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국과 독일의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BPAM 프로젝트 밴드의 무대. 즉흥연주라는 재즈의 특징을 살린 음악 외에도 위촉곡인 'Open your arms'를 세계 초연한다. 이 곡은 뮌헨 국립음대 레고리 휴브너 교수가 한국의 민요와 영남무악, 동래학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 축제의 땅 '영남무악'

10월 5일(토)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예로부터 '호남은 소리, 춤은 영남'이라고 할 정도로 영남은 춤으로 유명하다. 춤 음악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근본으로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삼현육각이 남은 곳은 통영이 유일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대로 전승된 영남의 춤과 음악을 찾아 판을 열고 옛 춤을 잇는 동시에 새 춤을 짓는 무대를 선보인다.

### 파코의 뉴 데코 클래식 '더 라틴 터치' & 고영열 피아노 병창 '춘향'

10월 6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내 유일의 퍼커셔니스트이자 편곡자인 파코 드 진이 이끄는 파코의 뉴 데코 클래식의 '더 라틴 터치'와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고영열의 피아노병창 '춘향' 무대.

###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콘서트

10월 7일(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미국 노동운동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이정표가 되었던 할란 카운티 탄광촌의 노동운동을 담은 창작뮤지컬로,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년여간 쇼케이스 등 개발 작업을 거치면서 탄탄한 구성과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1976 할란카운티

### 브리쉬씨어터(주) '두들팝'

10월 7일(월) 오후 6: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어린이의 낙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흰 도화지가 흘러내리는 듯한 무대 배경 앞에서 진행되는 우기와 부기의 모험은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음향 효과,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오브제들과 함께 아이들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이의 세계에 흠뻑 매료될 것이다

### 로이 아사프 댄스 '고르니슈트' [폐막작]

10월 8일(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 치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소리와 몸짓의 기묘한 조화가 어우러지는 이스라엘 출신의 안무가 로이 아사프의 '고르니슈트'.



[폐막작] 고르니슈트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

## 2024 부산국제합창제

문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조직위원장 김충석)가 10월 23일 개막 전야공연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국제합창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합창단이 부산을 찾으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한국과 전 세계의 합창단이 경연을 통하여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워크숍과 콘서트를 통해 세계 합창 음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등 합창 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만남의 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합창제는 예술위원장으로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전진 지휘자를 임명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한다.

올해 합창제는 국내외 21개팀, 1,000여 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하여 축제의 장을 펼친다. 부산국제합창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합창경연은 23일 오후 청소년 부문 경연을 시작으로 24일 오후에는 민속 부문, 25일 오전에는 팝&아카펠라, 오후에는 클래식 부문 경연이 진행된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지휘자인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음악/음악 교육 명예교수인 앤서니 리



라포엠

치, 에스토니아 국립 음악·연극대학교 지휘과 교수인 히르보 수르바, 싱가포르 SYC Ensemble Singers 지휘자인 제니퍼 팜, 그리고 원주시립합창단 정남규 지휘자가 참여한다.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23일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는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부산, 원주, 나주시립합창단과 5개국 연합합창단의 대규모 합창 공연이 펼쳐지는 ‘오프닝 콘서트’가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월드엔젤피스와 JTBC예능 ‘팬텀싱어’ 시즌3의 우승 팀인 라포엠이 특별 출연한다. 테너 유채훈, 박기훈, 카운터테너 최성훈, 바리톤 정민성으로 구성된 라포엠은 전 세계 최초 정통 카운터테너가 포함된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이자, ‘팬텀싱어’ 시즌 최초로 모두 성악 전공자로 이루어져 화제가 된 바 있다.

10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그랜드 콘서트’가, 2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경연에 참가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트비아 등 4개국 연합 합창단들의 ‘스페셜 콘서트’가 펼쳐진다.

한편, 합창제에 앞서 진행된 ‘2024 부산국제합창제 창작 합창곡 공모전’에서는 전 세계 21개국, 43개의 뛰어난 합창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 2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남아프리카 출신 작곡가인 Motshwane Pege가 영예의 1위를 수상했다. 1위 수상작인 ‘Look at the Stars’는 10월 26일 시상식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 2024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 SEEING IN THE DARK

문의: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24 부산비엔날레'가 8월 17일 개막 이후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지난 1981년 부산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전신으로, 그동안 안정된 전시 운영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웰-메이드 전시'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비엔날레는 총 36개국 62작가/팀(78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세네갈, 자메이카, 코트디부아르, 토고와 같은 아프리카의 영상, 설치 등을 포함한 현대미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2024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은 주 전시관인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의 금고미술관, 한성1918, 초량재 등 4곳으로, 부산현대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시 해설 프로그램과 더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쉬운 말 전시 해설과 수어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2022 부산비엔날레

# 종합예술의 대향연

# 2024년 제62회 부산예술제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1회 부산예술제가 10월 5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시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

의 직할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로, 2009년부터는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 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발돋움하여 지역 문화 성장을 이끌어왔다.

차  
이  
점  
요  
점

- 부산연극협회 '제7회 작강연극제'**  
10월 5일(토)-21일(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나다소극장
- 부산건축가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10월 8일(화)-11일(금) 영도 원지
- 제62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개막공연 '예술낙원'**  
10월 10일(목)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부산꽃작가협회 '꽃예술전'**  
10월 18일(금)-20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부산차문화진흥원 '세계음다풍속'**  
10월 18일(금) 낮 12:0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 부산국악협회 '전통음악한마당'**  
10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부산미술협회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10월 21일(월)-26일(토) 부산시청 제1,2,3 전시실
- 부산음악협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0월 2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부산문인협회 '제11회 지역문학작품교류전'**  
10월 23일(수)-27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부산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10월 23일(수)-26일(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부산영화인협회 '2024 부산영화제-단편영화 회원교류전'**  
10월 26일(토)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제25회 부산실버가요제'**  
10월 27일(일)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예술제'**  
10월 27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기대를 넘어서는 감동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612회 연주회



• 박진홍 음악평론가

지난 7월, 지휘자 홍석원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향 단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것과 더불어 폭넓은 레퍼토리로 인정받아 왔기에 선정 발표 이후 음악계에서도 큰 기대감이 일었다. 9월 6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홍 감독의 취임 기념 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연주는 열다섯 해째를 맞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메인 콘서트를 겸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던 터라 예상은 했지만 연주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부산문화회관 인근은 교통 정체로 후끈한 북새통을 이뤘다. 로비에서 만난 관객들의 모습에서도 이후 펼쳐질 무대를 생각하며 들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 붓으로 그리듯 음악을 묘사하는 피아니스트

첫 곡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는 조용한 거장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1악장부터 연주자의 모든 역량을 가감없이 드러낸 무대였다. 간결한 필치로 한 획 한 획 윤기 나는 질감을 표현하듯 힘차고 명확하게 그려나 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들어 냈다. 강렬한 터치는 카리

스마가 되어 순식간에 객석을 휘감아 청중의 호흡마저 집어삼켰다. 서서히 당기는 것이라 순식간에 빨아드리는 흡입력이 느껴지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모든 음악 요소들이 있어야 할 곳에 굳건하게 흐트러짐 없이 존재하는 그저 이상적인 모습 자체였다. 마치 세상 모든 걸 그려낼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전능한 화가와 같이 음악을 그려냈다.

2악장은 몸을 달군 열대야의 열기를 부드럽게 밀어내듯 선선한 청량감을 선사하며 시작되었다. 피아노는 작지만 분명한 자기만의 모습으로 오케스트라와 대비되며 입체감을 만들어갔다. 지휘자의 의도는 모든 악기와 하나씩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가 되어 소리를 만들고 서로 어우러졌다.

이어진 3악장은 깔끔한 다이내믹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1악장에서 너무 다 보여줘서 3악장 끝까지 이 다채롭고 풍성한 감동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담담하게 무너뜨렸다. 점점 크레센도 되어 쌓여가는 에너지가 곡의 마무리까지 이어지고, 웅장하게 마지막 터치가 건반을 떠났다. 부산시향과의 앙상블이 너무 훌륭했던 무대였다. 특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또 오케스트라 내부의 여러 악기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균형을 잘 이루었다. 코르산티아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잠시 미루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게 한동안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앵콜로 연주된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행에서는 음악이 담고 있는 색채와 분위기를 무심하게 그려내며 '황제'와는 다른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 서사를 이야기하듯 생동감 느껴지는 연주

1부에서 알렉산더 코르산티아가 그림을 그리듯 음악을 묘사했다면, 2부에서는 장대한 서사를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듯 읽어 내는 홍석원 예술감독의 색채가 잘 드러나는 무대였다. 첫 곡은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이 연주되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펼쳐졌던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국 연주의 장면들을



이 하나씩 퍼즐처럼 떠올랐다. 그동안 부산시향의 바통을 잡았던 예술감독들이 보여주었던 각기 다른 음악의 조각들이 이음새를 메워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향 단원들 간 호흡이 섬세하게 잘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안정감 있는 음정과 음색, 악기군별 균형감 있는 밸런스로 입체감이 더 두드러졌다. 명료하게 배치된 다이내믹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졌고, 지휘자의 에너지는 포디엄을 뚫고 나와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어서 홍석원 예술감독이 만들어갈 새로운 부산시향의 모습이 리스트의 교향시 제3번 전주곡에 담겨 연주되었다. 느린 템포로 시작하는 부분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생명의 끝을 느끼게도 했다. 결국 시작과 끝의 경계는 생각에 달렸다는 듯이 말이다. 연주가 점점 후반부로 치달으며 시향의 내재 되어 있던 잠재력들이 더욱 빛났다. 시향이 흘러내는 역량의 물결을 공연장이 미처 다 받아내지 못할 만큼이었다고. 긴 시간 한 방울씩 담아온 음악들이 이제 그릇의 높이를 타고 넘치기 시작했다. 아마도 관객들은 새로운 여정에서 느끼게 될 즐거움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 다채로운 음악의 가치를 뺏어가길

연주 내내 첫 연주임에도 지휘자의 마음이 오케스트라에 잘 수용되고 있으며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홍석원 예술감독은 부산시향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잘 잇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말을 던졌고, 관객들은 이에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앵콜 곡으로 바그너의 로엔그린 3막 전주곡을 연주했다. 홍석원 예술감독의 레퍼토리가 교향곡이나 협주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등의 극음악, 현대 음악 분야까지 폭넓어서 더 흥미로운 부산시향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끝난 대극장 로비는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바뀐 분위기였다. 풍부한 영양분과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 내린 부산시향이 홍석원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더욱 다채로운 음악의 가치를 뺏어 내길 기대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일 시** | 7월 2일(화)~10월 27일(일) 전시실  
**입 장 료** |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  
**문 의** | ㈜가우디음어소시에이츠 1661-1079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 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소장품 145점을 소개하는 기획전.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 근현대 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작품은 물론 18~19세기 영국과 유럽 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3만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의 근현대 명작을 소장한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서양미술의 전반과 아프리카 미술을 소개하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로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작가들의 원화와 판화, 조각 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파가야금합주단 제27회 정기연주회  
 絃의 祝祭 열 네 번째  
**가야금과 현죽농음(絃竹弄音)**

**일 시** |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010-5148-3336



지난 2011년 시작된 '현의축제' 열 네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 '구례향제줄풍류' 연주를 시작으로 피리 명인인 부산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생황과 일파가야금합주단 고문인 장명화의 단소 연주가 어우러지는 생소(생황, 단소) 병주곡 '염양춘'에 이어 한국 얼후협회 대표인 이비의 얼후독주곡 '축영요흥'이 연주된다. 중국 국가 1급 연주원 염영식(단소), 박예선(가야금)은 '초소의 봄'으로 연변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며, 25현 가야금중주 '오백년', 가야금연주로 듣는 월드뮤직 '리베라탱고, 차르다시', 그리고 장혜숙 단장의 가야금과 이비의 얼후가 함께하는 '연화의 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극장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일 시** | 9월 7일(토)~10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10월 1일(화), 3일(목), 9일(수) 오전 11:00, 오후 2:00  
 ※ 화-금요일 오전 10:30 단체공연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2천원(전 연령 관람가,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작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왕자와의 결혼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데렐라를 선보이는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특히 이번 작품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호의와 조력을 통해 완성되었던 여성의 성공담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행하며 성취해내는 여성의 성장담을 담고 있다.

- 작, 연출/김지용

부산시민을 위한 대합창 Festival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일 시** |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 의** |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010-3936-7757



지난 2011년 합창을 사랑하는 60여 명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 중구시니어코러스의 '부산시민을 위한 대합창 Festival'.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중구시니어코러스와 강서하모니합창단, 피아노 코러스, 부산울산원음합창단이 함께 출연, 부산시민을 위한 대합창 페스티벌을 펼친다.

- 지휘/배은심
- 피아노/조은지, 남현숙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일 시** |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유망주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일부 악장만을 연주하던 이전 무대와 달리 오디션을 통해 뽑힌 단원들이 실내악 전 악장을 연주, 제대로 된 실내악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프로그램**

- 단치/목관5중주 제2번 사단조 작품 56
- 하이든/디베르티멘토 다장조 MH. 179
- 브람스/호른 3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0
- 지휘, 지도/백승현(수석지휘자)
- 연주/김나영, 원예지, 신호연, 김가원, 신예은, 이상혁, 윤지한, 이재원, 서은우, 차동화, 민지원(객원)

**제30회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초·중고·대학생 50% 할인)  
**문 의** | 현대무용단 자유 010-3383-2342



지난 1995년 창단된 전문 무용 단체로, 부산을 기점으로 꾸준히 창작활동을 통해 매해 새롭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현대무용단 자유는 현대무용의 기초 작업과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출하고,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을 넓혀왔으며, 자연을 거름 삼아 부산만의 고유한 장소에서 아야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자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그린 '독거(안무/하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의 몸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몸(안무/안선희)',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감정을 가능성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유의 과정을 신체의 물성을 통해 보여주는 '틈(안무/이연주)'을 선보인다.



부산문화회관

제2회 지음양상블 정기연주회

League of Music

Classic vs Modern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현장구매)  
 문 의 | 지음양상블 010-9798-4538



클래식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한편,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연주로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지음양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Passion, Heart, Colorful, Romance, Mysterious, Rhapsody 등 6개의 주제를 놓고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두 장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 플루트/조다운 • 바이올린/고소영
- 첼로/김경연 • 첼로/김연경
- 피아노/조진선 • 퍼쿠션/이영훈

보티첼리 & 리성야 콘서트

일 시 |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케이아트엔컴퍼니 02-797-7290



큰 팬덤을 지닌 국내 대표적인 여성 클래식 기타 앙상블 '보티첼리(Botticelli)&보티(Botti)'와 중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 솔리스트 '리성야(Li Xingye)'의 특별한 콜라보 무대.

세계 3대 기타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Printemps de la Guitare'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한 비루투오소 기타리스트 리성야와 완벽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의 대명사인 '보티첼리&보티'의 만남으로 주목받는 이번 무대에서는 솔로와 트리오, 사중주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형태와 이들만의 장점을 극대화한 레파토리로 관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라온콰이어 창단연주회

일 시 |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문 의 | 라온콰이어합창단 010-2874-2001



2022년 6월 창단한 아마추어 혼성합창단 라온콰이어 창단연주회. '즐거움'이란 뜻의 순우리말인 라온콰이어는 모두가 즐기고 행복한 합창, 관객과 소통하는 합창을 추구하며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합창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창단 후 드림콘서트,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 라온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이안오케스트라 연주로 멋진 앙상블을 들려준다.

- 단장/정원철
- 연주/이안오케스트라

2024 부산음악대축제

일 시 | 10월 16일-17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16일(수)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지역의 6개 대학 피아노 전공자들과 부산음악협회 신인팀이 참여하는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 음악감독, 해설/김병기
- 17일(목) 부산음악대축제 IV '합창 대축제' BWS부산와인스쿨 동문합창단(지휘/채범석),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채범석), 부산대학교합창단&동문합창단(지휘/김성복), 부산사대부고 동문합창단(지휘/채범석)과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꾸며지는 '합창 대축제'.
- 해설/테너 양승엽 • 소프라노/박소영
- 바리톤/유용준, 윤풍원

부산거문고악회 제14회 정기연주회 The One, 願 하나로 만나다

일 시 |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만 6세 이상 관람)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2531-8350



부산 유일의 거문고 앙상블 단체인 부산거문고악회 정기연주회로, 관객과 연주자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묵직하고 단정한 현의 울림을 전한다.

자연의 정령인 도깨비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거문고 3중주로 담아낸 이아로 작곡의 '도깨비불'을 시작으로, 故 황희종 교수의 가야금 독주곡인 '청산'을 거문고 이중주로 연주하고, 2024년 위촉곡인 박한규의 거문고 합주곡 '옛산조 I'에 이어 부산대학교 이정호 교수의 거문고 독주를 위한 'Burning'을 거문고 합주곡으로, 그리고 부산거문고악회의 모든 연주자가 출연, 거문고 중주곡 '무한 루프(무너진 결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권은영(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배승현 귀국 첼로 독주회

일 시 |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Neue Musik Schule 010-5558-4950



부산예고 졸업 후 도독, 데트몰트 국립음대와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후 현재 플레자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배승현 귀국 독주회.

학사 시절 이탈리아 몬테풀치야노에서 크리스토퍼 포펜이 지휘한 colleg für Musik und Kunst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고 데트몰트에서 열린 Auryn kammer 콩쿠르에서 트리오로 2등에 입상한 배승현은 귀국 후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내셔널 오케스트라,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으로 활동하며 트리오 팀을 결성, 경북교 클래식에서의 연주활동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이호정(양상블 안음 멤버)
- 게스트/스톤트리오

### 토마스 슐츠가 연주하는 나효신의 피아노 음악

일 시 |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대한민국 작곡상을 2번이나 수상한 작곡가 나효신의 대표곡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지난 29년 동안 후학을 양성해온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가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작곡가 나효신은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도미, 맨하탄음대 석사과정, 보울더콜로라도 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세계 유수 단체와 음악가들로부터 위촉받아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나효신의 많은 작품들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소개해온 토마스 슐츠가 나효신의 피아노 독주곡 6곡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 소프라노 양은제 리사이틀 나의 살던 고향은

일 시 |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양은제 010-9384-7568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양은제 독창회.

양은제는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KBS 주최 'APEC 성공기원 음악회', 광양 포스코 초청 백은아트홀 콘서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부산 CBS-그랜드오페라단 주최 전국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부산상록교회 할레루야 성가대 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국가곡과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Je Te Veux', 에디트 피아프의 '장미빛 인생', '난 후회하지 않아요' 등을 들려준다.

- 피아노/신희정
- 트럼펫/손장원 • 드럼/왕진호

### 2024 제16회 부산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문 의 | KNN 850-9568, www.knn.co.kr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

프랑스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인 라무뢰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 가단조'와 보로딘 '폴로베츠인의 춤',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작품 35'를 들려준다.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넘치는 아이디어로 시종일관 청중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CBS 라디오의 클래식 방송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진행하며 대중들과 적극 소통해 오고 있다.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14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희숙 010-2562-6561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꿈꾸는 부산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올해로 결성 18주년을 맞은 부산리코더앙상블은 리코더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외국 유명 연주자들과의 꾸준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연주법과 해석법을 익히며 기량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과의 만남을 시도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강희숙(리더), 박선숙, 최유미, 최유리, 안경옥, 김현숙, 나은경, 이성실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R.D. Tennent와 Jan Kok이 편곡한 리코더앙상블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학수 콘서트

일 시 |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배기타전문화원 246-2780, 010-3585-3780



우리나라 클래식 기타의 개척자였던 고 배영식 선생의 뒤를 이어 클래식기타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학수의 무대.

어려서부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던 배학수는 1973년 브라질로 유학, 3년간의 음악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후 1976년 부산시민회관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독주회 및 초청 리사이틀,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3대를 이어 클래식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배서완, 1967년 배영식 선생에 의해 창단된 Aranjuez Ensemble(구영현, 윤순선, 한정웅, 옥석대, 배서완)과 함께 클래식기타만의 매력적인 선율을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일 시 | 10월 22일(화)-12월 6일(금) 평일 오전 10:30(단체공연),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일-월요일 휴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지는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흑 떼러 갔다가 흑 붙었다는 속담의 유래인 우리나라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 설화를 원작으로 하는 어린이 뮤지컬로, 무거운 흑을 달고 살지만 항상 행복한 흑부리 영감과 심술많은 심술부리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교훈을 어린이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주머니 받거니 하는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어린이들의 흥을 돋운다.

### 제62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2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사)부산음악협회가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선율로 가을밤을 물들인다.

- 소프라노/윤비연, 고은솔
- 테너/김지호, 장진규, 김희수
- 바리톤/최대우, 안세범, 박하민
- 지휘/김현국
- 오케스트라/부산청년오케스트라
- 해설/김정화

### 이슬 귀국 첼로 독주회

일 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슬 010-3551-6332



서정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성을 가진 첼리스트 이슬 귀국 독주회.

인제대학교 학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봉, 국립후에일 말메종 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로 졸업한 후 블로뉴 음악원에서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레호츠 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한 이슬은 그동안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독주와 실내악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슬은 귀국 후 인제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원더첼로, 앙상블 벨 에킵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과 드뷔시, 베버르,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민선

### 반지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의 | 반지영 010-8410-1046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반지영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피아노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 만점으로 졸업한 반지영은 유학시절에도 매년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를 활발히 가져왔으며,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참가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해왔다. 현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지영은 이번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프로그램

바흐/영국조곡 제3번 사단조 BWV 808  
 야나체크/안개속에서  
 슈베르트/피아노소나타 제16번 가단조 D. 945

### 하부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6: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하부성 010-8548-3375



섬세한 표현과 따뜻한 음색을 지닌 피아니스트 하부성 귀국 독주회.

하부성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도독,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할레-비텐베르크 마틴 루터 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그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에서 연주회를 가져왔으며, 유럽 각지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참가, 음악적 기반을 폭넓게 다져왔다.

현재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인 하부성은 이번 무대에서 헨델, 베토벤, 드뷔시, 프로코피예프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지역 유망주들에게 협연 무대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부산시립교향악단 백승현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거친 5명의 유망주들이 관객과 만난다.

- 지휘/백승현(부지휘자)
- 바이올린/권세훈(예원초등 6학년), 황아영(무정초등 4학년)
- 호른/송지효(부산예중 3학년)
- 트럼펫/백도영(부산예고 3학년)
- 피아노/이연서(신곡초등 5학년)

### 2024 융복합 예술 콘텐츠 프로젝트 립모션으로 생상을 그린다

일 시 |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주)다소니 328-9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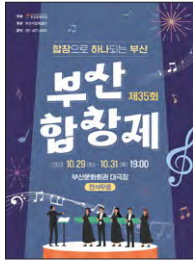


2024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주)다소니가 부산지역 내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해 개발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립모션으로 생상을 그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시대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예술 콘텐츠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주제로 한 악기 연주와 립 모션 센서를 활용한 발표회로 진행된다.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5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29일-31일 화-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 인구의 저변 확대와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한 부산의 대표 합창 축제 '제35회 부산합창제'.

올해는 총 59개의 신청 팀 중 심사를 거쳐 선정 된 33개팀이 사흘간 무대에 오르며, 매회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연합합창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 사회/김수영

**29일(화) 출연팀**

경남여고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금정구시니어합창단(지휘/박용선), 더 퓨어 레이디스 싱어즈(지휘/양재원), 미루샘합창단(지휘/한정현), 범여사합창단(지휘/문정재), 부산브라보합창단(지

휘/진영민), 부산시 약사 피미온스 합창단(지휘/고영호), 부산시공무원합창단(지휘/김성복), 부산시 여성연합창단(지휘/임희준), 부산의용소방대합창단(지휘/박미경), 청춘드림합창단(지휘/김수진), 부산시립합창단(지휘/이기선)

**30일(수) 출연팀**

BTN불교TV부산합창단(지휘/추현철), THE올림 CHOIR(지휘/전상철), 금성하모니(지휘/손옥), 기장해송여성합창단(지휘/윤풍원), 동래 옥색여성합창단(지휘/이태영), 동백합창단(지휘/조현수), 마린뮤즈콰이어(지휘/김태호),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강규), 조아콰이어(지휘/이승현), 크리스탈합창단(지휘/김수정), 해운대 We Road Choir(지휘/권영기), 부산시립합창단(지휘/이기선)

**31일(목) 출연팀**

CBMC부산총연합창단(지휘/강재석), CBS콰이어(지휘/이외균), 강서명호여성합창단(지휘/임재우), 강서 하모니 합창단(지휘/이은정), 멜로다임(지휘/이종석), 부산강서우나벨라여성합창단(지휘/김서진),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지휘/김성훈), 불다보이스콰이어(지휘/이찬우), 조아콰이어(지휘/이승현), 성산콰이어(지휘/김석중), 에버그린코러스(지휘/이정철), 부산시립합창단(지휘/이기선)

창작오페라 **페스트**

일 시 |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0월 10일까지 조기 예매시 4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루체테음악극연구소 513-1009



참신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루체테음악극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페스트'.

오페라 '페스트'는 카뮈의 동명 소설을 배경으로 창작된 오페라로, 실존주의적 철학을 예술적으로 무대화하여 카뮈보다도 더 카뮈답게 무대에 그려낸다.

- 작곡·예술감독/백현주
- 대본·연출/김지용
- 지휘·음악감독/전진
- 출연/김종표, 이태영, 구민영, 박찬, 최모세, 하태선, 왕기현
- 연주/유코 오케스트라
- 합창/루체테 오페라 앙상블

김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Schubertiade**

일 시 |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음악 연구회, 부산피아노연주 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 협회, 아인클랑피아노앙상블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혜선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독,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Tadini 국제콩쿠르, Padova 국제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김혜선은 국내외 독주회 및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선정 초청연주를 비롯하여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부산피아노연주 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12개의 독일 무곡'과 '악흥의 순간', '피아노 소나타 작품 959'를 들려준다.

파르티타 7번째 기획공연  
김진세 기타 리사이틀 **별 헤는 밤**

일 시 |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학생 3만원  
문 의 | 파르티타 02-3471-0017



유럽에서의 다양한 무대 경력과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의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의 무대.

이번 '별 헤는 밤'은 윤동주의 동명의 시에 나오는 6가지 별을 주제로 기획된 음반과 무대로, 한 세기가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연주가가가 시인 윤동주의 투명한 영혼이 담긴 그의 시에 보내는 음악적 '和答時(화답시)'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한 시대의 예술가와 다른 시대의 예술가의 감성이 대화하듯 서로 맞닿아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포레의 저녁 만찬 Soirée Gabriel Fauré**

일 시 |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3천원 (학생 및 65세 이상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2024년 포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기획사인 아트뱅크코레아와 국내 최고연주자들이 마련한 기념음악회 '포레의 저녁 만찬'.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 포레의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프랑스 음악의 우아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해설/박유미
- 피아노/권준, 박성희
- 바이올린/김도경
- 첼로/정준수
- 소프라노/박성희
- 메조소프라노/한현미
- 테너/조윤환
- 바리톤/지광윤
- 반주/안준희, 김현정

부산시민회관

연극 **슬픔이 찬란한 이유**

일 시 | 10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4세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문화판 모이라 010-9701-0712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문화판 모이라의 창작극 '슬픔이 찬란한 이유'.

2014년 창단 후 '거기, 두루마음이 있다'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올드 브라더미싱', '119 옆 낙원빌딩', '목대평으로부터' 등 상임연출가이자 경성대학교 교수인 김숙경의 창작극을 무대에 올려온 문화판 모이라는 그동안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과 주제 의식, 그리고 대중적인 소통방식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창단 10주년 기념 레퍼토리는 2021년 전국 창작회극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올해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지원사업 '올해의 포커스 온'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작, 연출/김숙경(경성대학교 교수)

플레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무지개 구출 작전**

일 시 | 10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7만원(10월 4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24개월이상 관람가)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전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키즈 콘텐츠 핑크퐁을 플레이 뮤지컬로 제작한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무지개 구출 작전'.

알록달록 색깔나라의 축제에 색깔양정의 초대를 받은 핑크퐁과 아기상어, 튼튼샘은 알록달록 색깔나라에 도착하지만 색깔나라의 모든 색깔들이 지워지기 시작한다. 위험에 빠진 색깔나라를 구하기 위한 핑크퐁과 친구들의 무지개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

플레이 뮤지컬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성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나들며 노래와 춤, 미술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김정원의 춤 열두 번째 이야기 **영남의 시간 연을 맺다**

일 시 | 10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춤소리 예술단 636-8071



춤소리 예술단 대표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있는 김정원의 춤 열두 번째 이야기로, 서로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우수한 지역의 춤으로 재구성한 제1장 '자유의 시간'에 이어 제2장에서는 배기고 어르고 맺고 푸는 영남춤의 진수를 오토이 감상할 수 있는 '영남의 시간', 그리고 영호남 화합의 무대이자 관객과 연을 맺는 제3장 '연의 시간'이 펼쳐진다.

- 연출, 예술감독/김정원
- 특별출연/김태형(전 동래학춤보존회 회장), 이경화(승무, 살풀이춤 이수자), 장래훈(천안시립무용단 객원안무자), 박정철(구미무용농악보존회 예술감독), 조수황(국립창극단 단원)

제2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 시 | 10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 6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이끈 대표적인 작곡가 도니체티의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산광역시오페라단연합회 소속 민간오페라단이 펼치는 제2회 부산소극장 오페라축제 일환으로,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사랑의 묘약'은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도니체티만의 유쾌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 예술총감독/손옥 • 연출/이병웅
- 지휘/윤상운 • 오케스트라/카메라타 부산
- 합창/그린나래 오페라양상블
- 출연/이진영, 강주희, 김준태, 김성, 유용준, 최모세, 박순기, 이기백, 박예은, 정민지

조선 최초의 서커스 **부남사당**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매직큐 070-4221-4726



과거 조선시대 시작되었던 최초 서커스 형태의 공연을 현대에 흐름에 맞추어 재탄생시킨 조선 최초의 서커스 '부남사당'.

'부산 남자 사당패'라는 뜻의 '부남사당'은 조선 최초의 서커스를 재연하기 위해 모인 진정한 길거리 광대로, 조선시대 서민들의 스토리가 담긴 화려한 서커스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남사당패의 은어로, '요술', '마술'을 가리키는 '얼른'이라는 장르를 부활시켜 마술과 저글링, 가면극, 기예, 그리고 전통까지 즐길거리가 가득한 총 다섯 마당의 서커스 무대가 펼쳐진다.

- 출연/김용천, 김영진, 구본진, 오장욱, 이영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일 시 |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3일 일요일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10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8세기 말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사기극'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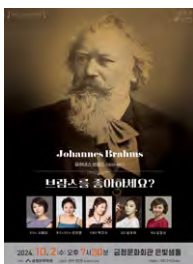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공개된 '보르티게른(Vortigern and Rowena)'의 진실과 그 뒤에 숨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위자를 발표한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미지의 신사 H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인정, 부와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

- 출연/김수용, 김지철, 김지용
- 연주/박윤술(음악감독, 피아노), 서수진(바이올린), 이연(첼로)

### 10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9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상설 무대.



**2일(제867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피아니스트 서혜리, 비올리스트 박지수, 첼리스트 심에라,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이 들려주는 브람스 음악의 세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마지막 소나타 작품인 '비올라 소나타 제2번'을 시작으로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노래', '첼로 소나타 제2번'까지 가을의 서정과도 잘 어울리는 브람스의 곡들을 들려준다.

**16일(제868회) 디 첼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지역의 첼리스트들로 구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첼로 앙상블 디 첼리스트 앙상

블(Die Cellisten Ensemble)의 무대. 디 첼리스트 앙상블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첼로가 가진 매력인 목직함 음색으로 정통 클래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 음악감독/정준수
- 연주/우리라, 김무늬, 김기량, 조명환, 김지혜, 이민지, 성아란
- 게스트/신소미(첼로)



**23일(제869회) 차지윤의 해금독주회II '별곡과 산조'**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수생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차지윤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기 및 관악기의 특성을 지닌 해금과 유일한 타악기 속성을 지닌 양금으로 들려주는 '별곡' 중 '하현도드리-천년만세'와 기존 해금 독주곡이 아닌 해금의 화려하면서도 간드러지는

멋을 거문고의 중후한 성음과 함께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한 '지영희류 해금 거문고 산조 병주'를 들려준다.

- 해금/차지윤 • 양금/이하빈
- 거문고/문현진 • 장구/이현서
- 사회/심성현



**30일(제870회) 한상민, 심정운 피아노 듀오 콘서트**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동문으로,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명의 남성 피아니스트 한상

민, 심정운의 듀오 무대. 드뷔시, 그리고, 스메타나, 차이콥스키 등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피아노 듀오의 환상적인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드뷔시/네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작품 46  
 스메타나/몰다우  
 차이콥스키/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일 시** | 10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사전예매시 30% 할인)  
**문 의** | Raum färben 010-4498-3035, 010-9133-0276



부산의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보컬 앙상블 Raumfärben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Raumfärben은 지난 2022년 자체제작 오페라 '라 보엠'을 시작으로 칠팔버스킹, 청춘마이크 등 지역문화행사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특유의 서정성, 테크닉이 담긴 '벨 칸토 오페라'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 기획, 연출/황인태 • 무대감독/손용민
- 해설/류가은 • 피아노/김지은
- 출연/김주연, 김재원, 김영수, 이신혁

### '피자와 묘약' 오페라 쇼케이스

**일 시** |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선착순 착석)  
**문 의** | 오페라소셜동백 010-8992-7617



지역의 성악가들이 정통 오페라의 명맥을 잇기 위해 모인 오페라소셜동백의 오페라 쇼케이스 '피자와 묘약'.

1부에서는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도니체티의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2부에서는 최근 오페라 공연에 자주 등장하는 현대 코믹 오페라로, 밀실에서 벌어지는 19세기 이탈리아 가정의 사랑 관계를 미국식으로 장난스럽게 풀어낸 세이무어 바랍의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를 쇼케이스 무대로 선보인다.

- 예술감독/최윤석 • 음악코치/최인화
- 출연/박해미, 이동애, 한우인, 윤오건, 이혜지 (이상 버섯피자), 김지숙, 서지환, 김성진 (이상 사랑의 묘약)

### 문정원 양금독주회 1914 조선구악 영산회상 복원연주회

**일 시** |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문정원 010-9715-0916



부산야가금연주단 단원이자 양금연구회 준회원, 부산양금앙상블 동인, 평양기성출판류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양금연주자 문정원 독주회. 특히 고악보의 복원 및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21년 '방산한씨 금보 복원연주회'를 가졌던 문정원은 이번 무대에서 악보가 발행된지 1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구악 영산회상' 복원연주회를 갖는다. '조선구악 영산회상'은 전통악보(양금보) 중 한국인이 서양 기보법을 사용하여 오선보로 역보한 최초의 악보로, 특히 속도의 변화를 서양식표기인 rit, a tempo 등으로 명시하여 박자의 변화를 자세히 알 수 있다.

- 거문고/박성아

기타 공연장

10월 스페이스옴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옴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옴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옴의 10월 무대.



4일(제561회)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4집 '가을바람'  
쇼케이스 콘서트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4집  
음반 쇼케이스 무대로, 한국  
적이면서도 재즈적인 피아노

기법에 가사를 붙인 수록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 작곡, 편곡/하지림
- 판소리/안희주 • 보컬/박선우, 문소진
- 피리/김혜지 • 클래식기타/고충진
- 베이스/신세영 • 드럼/김우진



11일(제562회) 백재진의  
'바이올린 감상, 가을의 연가'

동의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부  
산피아노트리오,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더날개앙상블 음  
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

스트 백재진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을 비롯하여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라단조  
김한기/늦가을 어느날, 고흥의 봄  
블로흐/어머니의 기도(Nigun)  
바르톡/루마니아 민속춤  
• 피아노/김민선



18일(제563회) 비르투오조  
(Virtuoso)

연주와 강연으로 독일과 한국  
을 오가며 활동 중인 메조소  
프라노 지나 오의 무대.

'매우 넓은 음악과 강렬한 극  
적 잠재력'을 지닌 성악가로 호평받는 지나 오는  
서울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마인츠 국립음  
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과 한  
국에서 다수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기교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B단조 미사' 중 '당신을  
찬미합니다'를 시작으로 구노, 비아르도, 모차르  
트, 이차이, 쇼팽, 레하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 피아노/김영아 • 바이올린/이명환



25일(제564회) Flute &  
Piano Duo Concert  
'노스텔지어'

플루티스트 박은아와 피아니  
스트 김나경이 선사하는 '시간  
속의 시간'.



음악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을 이어  
나갈 '시간속의 시간'은 이번  
무대에 인생의 순간들을 되돌  
아보며 추억과 그리움, 향수  
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통해 우리의 기억과 감정  
을 되살린다.

특히 낭만의 정점인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를 시  
작으로 슈만의 '어린이 정경', 텔레만의 '우아한 유  
령'과 여성작곡가인 멜보이스 '플루트 소나타', 몬  
티 '차르다시' 등 심연에 와닿는 곡들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게네랄파우제 10월 공연

일 시 | 4일(금), 11일(금), 25일(목)  
오후 8:00, 5일(토) 오후 5: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  
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0월 무대.



4일(금) 오후 8:00 강혜인  
퀸텟 'The Beatles'

대중음악계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 대  
중문화의 아이콘, 전설적 그룹  
비틀즈의 음악을 재즈로 재해석한 특별한 무대.

강혜인 퀸텟의 특색있는 편곡과 연주로, 지금까지  
도 사랑받는 비틀즈의 음악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 보컬/정세미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혜인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5일(토) 오후 5:00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  
GP앙상블 '애가'

2017년 12월 출범한 게네랄파우제 GP앙상블의  
무대.

바이올린 정진경, 첼로 김경수, 피아노 강대현으로  
구성된 GP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와 차이콥스키의 '애가'를 들려준다.



11일(금) 오후 8:00 앙상블 참  
'Wind Quartet'

관객들에게 클래식 of 정수  
를 알리기 위해 클래식 작  
품만을 고집스럽게 연구하고

연주해온 앙상블 참의 무대.

특히 앙상블 참은 그동안 경남 및 국내에서 처음 연  
주되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창작곡을 찾아  
관객들에게 소개해오고 있다.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바순/이보배
- 해설/박민음



24일(목) 오후 8:00 월간  
민주신

게네랄파우제와 재즈피아니  
스트 민주신이 함께 기획한  
무대로, 매달 1회 연주자를

초청, 그들의 음악적 삶과 예술활동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로, 10월에는 베이스스트  
박재훈이 관객과 만난다.

제5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5661-3086



부산 최대 규모의 피아  
노음악 전문공연단체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의 정기무대.

10일(목) Appassionato  
열정적으로

독주에서 4 Hands,  
2 piano 4 Hands, 2

piano 8 Hands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

- 연주/이예린, 고정화, 정승연&정윤하, 김유  
미&최영주, 임이랑&조은아&박나희&서  
지민, 이수민&양진경&김보은&최조은,  
최진현&심정연, 최민경&성민주

11일(금) 2024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교향곡에서부터 애니메이션 메들리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앙상블로 들려주는 2024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 대한민국 창작음악의 세계화 프로젝트 2024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 시** |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글로벌아트홀 070-8095-9426



한국 전통의 우수성을 소재로 한 이 시대의 한국 창작음악, 합창과 관현악 축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번 무대는 한국 음악의 토대 위에 서양 음악을 재해석한 작업을 꾸준히 해 온 작곡가 신영순의 창작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성경(Bible)의 진수, 시편(詩篇)의 가사에 한국전통음악의 혼을 불어넣어 '한국의 시편'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로 탄생된 곡에서부터 우리나라 전통의 소재를 발굴, 아름다운 노래 '아가(雅歌)'로 승화시킨 작품까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나(Solo)가 우리(Duet)가 되고 우리들(Voice&Chamber)로 발전하여 우리 모두 함께(Choir&Orchestra)

승화되는 것을 음악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한국 창작음악 축제를 펼친다.

작곡가 신영순은 2002 부산아시아시계음악작곡자, 2003 미국 매디슨음대 현대음악페스티벌 초청작곡가로 활동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작곡상, 동아콩쿠르작곡상, 부산음악상, 부산예술상을 수상했다. 서울 국제문화대학교 교수, ICS신학대학원 부총장, 미국 미네소타신학대학원 석좌교수,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예술전문단체 글로벌아트홀 예술감독으로 있다.

- 작곡/지휘/신영순
- 소프라노/김유섬
- 바이올린/조혜운
- 클라리넷/백동훈
- 바이올린/이현우
- 예술기획/박종관
- 합창/글로벌 아르떼 합창단
- 연주/글로벌 아르떼 오케스트라
- 사회/차유미 PD(부산극동방송 부장)



### 제1회 김우진 작곡 발표회 기억의 조각

**일 시** |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김우진 010-8454-0477



부산대 음악학과 작곡 전공 실기우수 및 최우 등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재학중인 작곡가 김우진의 첫 번째 작곡 발표회.

김우진은 2022 진주 이상근 국제 작곡 콩쿠르 2위, 2023 창악회 작곡 콩쿠르 최우수상, 2024 대구 국제 현대음악제 공모 당선, 2024 오스트리아 프란츠 슈베르트 현대음악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 등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작곡 협연, 2024 제87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2024 대전 현대음악제 작품 발표 등 다수 무대를 통해 창작곡을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 첫 작곡 발표회에서는 학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이력을 살려 생명과학의 개념을 소재로 작곡한 특별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1일 공연없음)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8일(제53회) Wave Subsides

네덜란드 유타학을 마친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을 주축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연주력을 겸비한 일본인 드러머 시게키 오쿠보, 따뜻하고 섬세한 사운드의 실력파 베이시스트 김대경으로 구성된 민주신 트리오의 무대.

정통 재즈의 기반 위에 각자의 음악적 특색을 가미, 아름답고 흥미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민주신 트리오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이 고향인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의 삶을 그린 민주신 트리오의 정규 앨범 2집 'WAVE SUBSIDES'의 수록곡을 들려준다

15일(제54회) 마법의 선율, 디즈니와 지브리, 클래식 만남

디즈니의 밝고 희망찬 선율과 지브리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델리카토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무대.

델리카토 앙상블은 부산에서 활동중인 솔리스트, 전문 연주자, 대학 외래교수로 구성된 팀으로, 음악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자 결성됐다.

22일(제55회) 달빛 속의 하프 별빛 속의 하프 하프라는 악기의 빛을 이용하여 한층 높은 몰입감과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1, 2부로 나뉘어 별빛과 달빛이라는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익숙한 클래식 곡들과 인기있는 OST곡을 들려준다.

29일(제56회) 톨스토이 '크로이처 소나타'와 함께 듣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리니스트 윤보영이 들려주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9번 '크로이처'. 베토벤이 남긴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곡으로 평가받는 '크로이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영감을 자극하여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소설을 탄생시켰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 전곡 발매와 더불어 문학과 의 불가분의 관계를 해설이 있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한다.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8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홍성택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20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관객과 만난다. 임지영은 지난해 연세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프로그램**  
베를리오즈/환상교향곡 14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기타 공연장

블루밍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블루밍합창단 010-3941-0778



합창을 사랑하는 부산의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블루밍합창단 정기연주회.

블루밍합창단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오며 젊은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열정과 재능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하모니로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 외에도 뮤지컬, 팝, OST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 지휘/김성복
- 반주/안예슬

이야기가 있는 김선영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르떼포레 010-9985-0998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실기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영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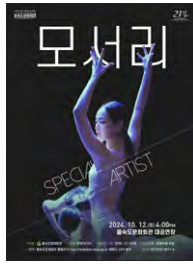
김선영은 프랑스 문학성 파리 음악콩쿠르, 야마하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우승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독주회 및 국내외 오케스트라의 협연, 초청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주제별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청중과 가깝게 소통해온 김선영은 이번 무대에서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BWV 903  
 모차르트/판타지아 라단조 K.397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다단조 D. 958 등

스페셜 아티스트 모서리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특별한 예술가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스페셜 아티스트'.

신체가 표현하는 조각의 아름다움을 관객의 상상 에 맡긴 윤경근 안무가의 '모서리'를 선보인다.

'모서리'는 특별히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두 시점이 교차하는 조각가의 행위와 신체의 표현을 탐구하는 행위를 결부시킴으로써 과거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안무가의 연출이 숨어있다. 1막 매만지는 손, 2막 끌과 사포, 3막 자연의 총 등 3막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치밀한 안무와 테크니컬한 무용수의 화려한 무대가 기대된다.

- 안무/윤경근 • 기획/강민아
- 출연/유하은, 안세영, 양성윤, 구희진, 조선재, 이창민, 윤희서

제19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국창작가협회 010-5541-8576



지난 2009년,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협회(회장 김성덕)가 들려주는 제19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아련한 추억, 제2부 애뜻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다양한 편성의 창작곡을 들려주며, 제8회 한국창작가곡대상 시상식(작곡부분 김수정)도 함께 열린다.

- 어린이 독창/김태은, 정재인
- 메조소프라노/서민선 • 테너/장진규
- 중창/소리향기중창단(지휘/오가영)
- 합창/브라비씨모합창단(지휘/황윤정)
- 연주/브라비씨모현악앙상블

제24회 아르스칼렛 정기연주회 아르스와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일 시 |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서은아,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칼렛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현악4중주', 레스피기 '피아노5중주' 외에도 콰트로 루오테를 초청, 칸초네로 이탈리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4륜구동'이라는 뜻의 콰트로 루오테는 테너 하세훈, 김정용, 바리톤 백진호, 신홍규 등 해외 정통 유학파 오페라 가수들로 결성된 남성 성악앙상블로, 그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오페라 곡뿐 아니라 클래식 기반으로 한 가요, 팝, 재즈, 라틴, 영화OST 등 다양한 장르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 협연/조현선(피아노)

2024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응답하라! 우리들의 1990

일 시 | 10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잊고 있던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응답하라! 우리들의 1990' 시리즈처럼 그 시대가 지닌 정서와 추억의 아련함을 다양한 음악과 함께 풀어내는 오페리움 한울의 '응답하라! 우리들의 1990'.

- 총기획/김나정 • 연출/최대우
- 소프라노/박소영, 이수진, 이유빈
- 메조소프라노/정연실
- 테너/양승엽, 김정권, 이민호
- 바리톤/채범석, 유용준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한울앙상블/바이올린 석나경, 첼로 황승희,  
기타 김경태

박명환 작곡 발표회  
클래식과 사운드트랙의 사이

일 시 |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프랑스 리옹 2대학 음악학과를 거쳐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작곡기법 학사과정, 스위스 제네바 국립고등음악원 대학원 피아노과,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작곡기법 석사과정,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영화음악 작곡과를 졸업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작곡가 및 피아니스트 활동중인 박명환 작곡 발표회.

박명환은 프랑스와 벨기에, 폴란드, 미국, 아이슬란드 등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 바이올린/심해수, 심비민
- 비올라/황영은
- 첼로/김경연
- 알토색소폰/김대훈

그랜드오페라단 제57회 정기공연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시 |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오페라 부파의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울뮤지컬단 연출 및 음악감독을 역임한 박경일이 연출을 맡고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박현정, 바리톤 유영광, 베이스 김지섭 외에도 연극배우 조현철, 정라영, 김준호, 박두성이 출연, 드라마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총 예술감독/안지현(신라대 명예교수)
- 오케스트라/드림문화오케스트라
- 합창/메트로페라합창단

2024년 구군문화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OST 콘서트

일 시 |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무료(12세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OST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조완수가 지휘하는 영아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로 '시네마 천국', '미션', '러브 에피어',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언터처블' 등 그의 대표작을 들려준다.

- 지휘/조완수
- 연주/영아츠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김지훈

전 세계 영화팬들의 가슴에 남은 수많은 명작들의 음악을 작곡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을 오케스트라 편곡과 연주로 만나는 '엔니오

제500회 가람초청음악회  
아티스트 그룹 세컨발코니 콘서트 IV  
가을 우체국, 세컨발코니에서

일 시 |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010-4668-2334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클래식, 뮤지컬, 팝과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겸비한 아티스트 그룹 세컨발코니(Artist Group 2nd. Balcony)의 무대.

팬텀싱어2 출신의 감성 보컬 김지원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세컨발코니의 '내 인생의 BGM이 되어주세요' 콘서트 '가을' 편으로, 가을 우체국에서 받고 싶은 '음악편지' 사연 선정자의 음악과 더불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 음악감독/김인애
- 바이올린/우소라 • 첼로/서송은
- 드럼/강태호 • 보컬/김지원

울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일 시 | 10월 17일(목), 24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17일(제15회) 국악그룹 이별 '호녀 심청, 그리다'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와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국악그룹 이별의 창작국악창곡 '호녀 심청, 그리다'.

이번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무악공연으로, 삼화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이야기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즐길 수 있다.

24일(제16회) B.T.E 제2회 정기연주회 'B.T.E 트럼펫 콘서트'

부산의 유일한 트럼펫 5중주팀 비떼(B.T.E)의 무대. 트럼펫의 매력을 알리는 무대로, 트럼펫만을 위해, 트럼펫에 의해 유명해진 친숙하고 대중적인 음악들을 들려준다.

지브리와 함께하는 북 씨네 콘서트

일 시 |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기획한 지브리와 함께하는 북 씨네 콘서트.

책과 영화,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어연히 (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하든 플레이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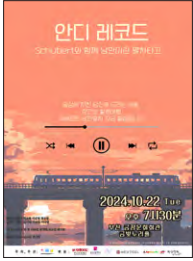
표 첼리스트 이명로와 그라스네 앙상블 단장이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꿈꾸는 요리사'로 유명한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으로 구성된 그라스네 앙상블이 지브리 음악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사회/김승연
- 연주/그라스네 앙상블

기타 공연장

안디 레코드 슈베르트와 함께 낭만이란 열차타고

일 시 |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 의 | Grow4music 010-2993-7915



슈베르트 낭만열차를 타고 떠나는 힐링여행. Grow4music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전공한 전문음악인들이 모인 청년예술단체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적인 화합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단순한 음악공연을 넘어선 모든 예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꿈꾸고 있다. 2024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작인 이번 무대에서는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음악선물을 통한 위로를 전한다.

- 출연/독고훈, 장진웅, 권은하, 이신영, 정유진, 연승모, 이신원, 김아영, 이승현, 이다빈, 박예은, 서치환, 김성, 서진원, 김정대, 서소현, 제여정, 금성빈, 이지수, 신도엽, 박가형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핀체코

일 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8733-7438



부산, 경남지역의 우수한 연주자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시벨리우스의 핀란드, 드보르작의 체코로 떠나는 클래식 음악여행으로 꾸며진다.

- 지휘/이동신(국립창원대 교수)
- 바이올린/정원영(국립창원대 교수)
- 작곡/황선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제11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일 시 | 10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7:30, 26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VIP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매년 마련하는 부산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 '제11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23일(수) 마인드피아노의 Autumn Jazz & Friends

피아니스트 최은정을 리더로, 베이스리스트 강성민, 드러머 고명석, 기타리스트 오창민, 색소포니스트 박승준, 그리고 보컬 위나로 구성된 마인드피아노의 무대로, 다양한 악기의 조합이 빛어내는 다채로운 재즈 선율을 만날 수 있다.

24일(목) 송영주 트리오  
 클래식에 기반을 둔 탄탄한 음색과 대중음악에 대한 탁월한 이해까지 겸비한 피아니스트 송영주를 리더로 드러머 임주찬, 베이스리스트 신동하로 구성

된 송영주 트리오와 객원보컬 김유진의 무대. 25일(금) 킹스턴 루디스카  
 자메이카 스카(ska) 음악을 선보이는 8인조 스카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무대.

'스카'는 자메이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발전한 음악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칼립소 음악에 춤추기 위한 리듬을 입히면서 만든 '캐리비안 멘토'라는 자신들만의 음악에 당시 미국에서 불어닥친 재즈가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된 음악이다.

데뷔 20년차인 올해, 한국 스카의 20년이라는 명예로운 이름표를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킹스턴 루디스카는 '스카'라는 장르를 대한민국 음악계에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출연/김정근, 서재하, 성낙원, 이석울, 임채선, 최철욱, 피인혁, 황요나

26일(토) 소울디바 임정희x조수임 재즈 퀸텟  
 특유의 소울풀한 보컬과 유려한 무대매너로 국내 대표 '소울 여제'로 사랑받는 임정희와 피아니스트 조수임을 리더로 드러머 고명석, 베이스리스트 이기욱, 신디사이저 김세미로 구성된 조수임 재즈 퀸텟이 들려주는 재즈의 향연.

- 스페셜 게스트/손한별(대금)

영도문화예술회관 렉처 콘서트 시리즈 콘서트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가을, 탱고의 전설

일 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콘서트가이드 김성민과 함께 떠나는 탱고음악의 세계.

이번 무대에서는 반도네온 앙상블 친친탱고와 더블베이스리스트 박재훈, 재즈기타리스트 김경모의 연주로 정열적인

탱고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반도네온리스트이자 작곡가 김종완을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피아니스트 이안나, 퍼쿠서니스트 이영훈으로 구성된 친친탱고는 지난 2020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영화의 전당 기획공연, 국제신문 한낮의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시민회관 시민뜨락축제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김혜지의 피리아 이야기

일 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10월 무대.

이번 무대는 피리 연주자 김혜지가 들려주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전통대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로, 여기에 피아노와 첼로가 더해져 대중적인 곡들로 관객과 공감하고 소통한다.

프로그램  
 당피리 '보허자', 세피리 '천년만세', 향피리 '나무가 있는 언덕', 대피리 '오버 더 레인보우', 생황 '섬집 이야기', 태평소 'JAZZ 아리랑'

### H CLASSIC HALL 선데이 클래식 향여진 비올라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4:00  
H CLASSIC HALL  
**입 장 료** |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H CLASSIC HALL 744-1415



올해 8월 해운대에 새롭게 문을 연 H CLASSIC HALL의 기획시리즈 '선데이 클래식' 첫 번째 무대 '향여진 비올라 리사이틀'.

부산시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있는 향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장학생 단원 및 계약단원을 역임했으며, 정명훈의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디베르티멘토 라장조'와 Hans Sitt 'Album Leaves 작품 39', 그리고 브람스의 '첼로소나타 제1번'을 비올라 연주로 들려준다.

- 피아노/박민선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아트 오브 카운터테너

**일 시** |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우리에게는 영화 '파리넬리'로 알려진 카운터테너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아트 오브 카운터테너'.

여성보다 아름다운 고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카운터테너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몬테베르디, 비발디, 바흐, 헨델이 남긴 위대한 성악 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바로크 음악을 빛내주는 악기 첼발로 연주와 현재 네덜란드 캄머코어와의 유럽투어 '바흐 마태수난곡'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카운터테너 정민호의 고풍스러운 해설이 무대의 풍성함을 더한다.

- 해설/정민호(카운터테너)
- 첼발로/아렌트 흐로스펠트
- 소프라노/정아영

### 2024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10월 재즈의 미학과 영화음악

**일 시** |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한국 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가 호스트로 참

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영화음악과 재즈의 만남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가 도입된 한국 영화음악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플란다스의 개',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 완전 정복' 등에 수록된 재즈음악을 재즈 퀸트의 연주로 들려준다.

### 해운대문화회관 10월 문화가 있는 날 e-플림 On Stage Concert 에나드리 예술동행 '수다'

**일 시** |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연주자와 소통하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e-플림 On Stage Concert'.

10월 무대에서는 보다 즐겁게, 가까이에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창단된 예술동행 '에나드리'가 관객과 만난다.

에나드리는 그동안 청중들과 함께 하는 맞춤형 공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교육 공연, 여행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사회/김성민
- 피리/정주아, 이윤희
- 드럼/이준형
- 신디사이저/김예진

### 연극 머쉬멜로우

**일 시** | 8월 8일(목)-2025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착한 도둑(?)의 요절복통 코미디극 '머쉬멜로우'.

능력 없어 회사에서 팔렸지만 힘든 일은 싫어하는 남편. 연애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무능력한 남편이 싫은 아내. 결혼한 지는 이제 일년밖에 안됐지만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이야기한다.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었으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도둑. 크게 한탕하기 위해 부잣집을 털려다 일이 꼬이면서 이들 부부의 집을 털게 된 도둑은 본의 아니게 신혼부부의 화해를 돕게 되는데...

신혼부부와 도둑이 펼치는 한바탕 해프닝이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뮤지컬 '신바람 삼대'

**일 시** | 9월 12일(목)-2025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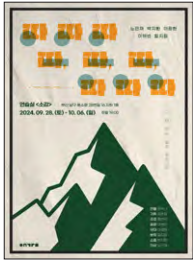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바람나 삼대'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바람 삼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삼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남자들의 전쟁이다. 어느

날, 세 남자는 집이 빈다는 기막힌 정보를 얻게 된다. 바글바글하던 집이 오늘날만큼은 텅 빈 공간이 되는 것. 세 남자는 각자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려는 여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요절복통의 해프닝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특히 배우 1인이 3역 이상의 멀티 역할을 맡아 고강도 웃음을 선사한다.

기타 공연장

극단 유감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일 시** | 9월 28일(토)-10월 6일(일) 주말 오후 7:00 연습실 소감  
**입 장 료** | 전석 7천원  
**문 의** | 극단 유감 010-9083-9637



산행 도중,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를 맞이한 다섯 사람. 험하고 복잡한 산길에, 얽히게 뒤틀린 격으로 모두 뿔뿔히 흩어진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열변을 토하지만, 오직 개인의 시점으로 지켜본 세상이기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 실상가상으로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온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이번 작품은 같은 사건을 통해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충돌함에도 결국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준다.

- 연출/정유나
- 출연/노민재, 박지환, 이광현, 이해빈, 함지원

뮤지컬 **하데스타운**

**일 시** | 10월 18일(금)-11월 3일(일) **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7:00 (월-목요일 공연없음) 부산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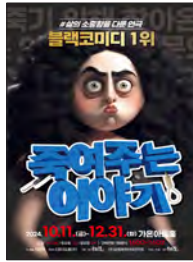
2019년 제73회 토니 어워즈 '최우수작품상', 2020년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최고 뮤지컬 앨범상', 2021년 한국 뮤지컬어워즈 '대상' 등을 수상한 뮤지컬 '하데스타운'.

지난 2019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 후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올해의 뮤지컬'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하데스타운'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로 향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리고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일 시** | 10월 11일(금)-12월 31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2세이상 관람가)  
**문 의** | 문화락 1600-1602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웃음으로 승화시킨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죽여주는 이야기'는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16년째 대학로에서 사랑 받고 있는 작품으로, 2015년에는 일본에 최초로 진출하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으로 은밀한 실험실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으로, '자살, 죽음' 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부두연극단 40주년 기념 공연 No.1 **19 그리고 80**

**일 시** | 10월 23일(수)-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가온아트홀 1관**  
**입 장 료** | 전석 3만원(전화예매시 2만원)  
**문 의** | 액터스소극장 611-6616, 010-7450-3582



1984년 창단 후 그동안 4번의 소극장(부두소극장, 가마골소극장, 연당소극장, 액터스소극장) 운영을 통하여 부산지역 소극장연극운동의 기수로 활동해온 부두연극단이 창단 40주

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공연 첫 번째 무대. 그동안 인간 존재의 근원 탐구, 현대 문명 비판 등을 주요 작품 주제로 다뤘던 부두연극단은 특히 진부한 리얼리즘극을 벗어나 초현실주의극, 부조리극, 제의극, 마임 등 형식 실험에 치중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40주년 기념작인 '19 그리고 80'은 1992년(변미선, 김영용 출연)과 2007년(김미경, 손영민

가족뮤지컬 **봄날의 꿈**

**일 시** |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특별한 전학생이 전학 오면서 벌어지는 별난 날의 행복한 소동, 가족 뮤지컬 '봄날의 꿈'.

지난 2008년 등단 이후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해 온 송미경 작가의 동명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로, 앞서 그녀의 또다른 동화인 '어른 동생'으로 호흡을 맞췄던 연출가 조선혁이 각색,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크고 무서운 외모와 달리 귀엽고 영똥한 모습이 사랑스러운 봄날의 꿈과 친구 시원이가 전학을 오면서 조용했던 교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하게 되는데... 똑같은 풍경만 계속되는 무료한 날들 속에 누구나 해봤을 직한 상상, 그 상상이 실현된 별난 날의 소동을 그린 '봄날의 꿈'은 특히 특수 제작된 곰 탈이 무대의 생동감을 더한다.

출연), 2012년(우명희, 구미석 출연)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부두연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부두연극단의 상임연출가 이성규와 올해 부산시립극단을 정년퇴직한 정순지가 제작, 각색, 연출을 맡았으며, 30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김경수와 20년 만에 무대에 복귀한 윤선희 등 노장들과 젊은 배우들의 앙상블로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자살을 꿈꾸는 19세 소년과 죽음을 앞둔 80세 노인의 기상천외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19 그리고 80'은 제목의 숫자가 의미하듯 이제 막 성인이 되려고 하는 청소년과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사랑이 계절의 순환처럼 이어져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가져다주며 사랑과 삶의 지혜에 대한 금언(金言)들이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울림을 준다.

- 원작/폴린 히긴스
- 제작, 각색, 연출/이성규, 정순지
- 출연/윤선희, 이승민, 김경수, 이사라, 신재훈, 정유나, 서예은, 황태현

무장애 음악극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일 시** | 10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1층) 4만4천원, S석(2층) 3만3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 앤 설리번의 실화를 통해 두 사람의 성장과 연대를 그린 음악극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생후 19개월에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과 8살에 시력을 잃고 여러 아픔을 극복해낸 애니, 태어나고 자란 환경, 장애의 양상마저 다르지만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위로가 되어주며 나아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극단적인 사막의 더위에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내리는 낙타들과 닮아 있다. 극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와 긍정의 에너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장애(베리어프리) 음악극으로, 전문 수어 통역사와 함께 한글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년 특별기념 공연 **송창식, 김세환, 양하영 포크콘서트**

**일 시** |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송창식, 김세환, 양하영 포크콘서트’. 포크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적 정서를 살린 음악과 개성 있는 가창력으로 인기를 모았던 송창식, ‘사랑하는 마음’,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떡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 듀오 ‘한마음’으로 데뷔하여 ‘갯바위’, ‘가슴앓이’, ‘친구라 하네’ 등 히트곡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양하영이 출연, 그들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 시대를 품미하고 한국 가요사에 굵은 획을 그은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포크음악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

**제15회 부산국제춤마켓**

**일 시** | 10월 2일(수)-5일(토) **금정문화회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춤마켓 010-9467-2925



프랑스, 대만, 독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한국 등 6개국 1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부산 유일의 무용 전문 마켓 ‘부산국제춤마켓(Busan International Dance Market, BIDAM)’. 올해로 15회를 맞는 행사로, 국내외의 18개 공연과 6회의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BIDAM 오프닝’을 시작으로 영유아와 가족 관객을 위한 ‘BIDAM 유스’, 국내외 흥미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BIDAM 포커스’,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춤을 선보이는 ‘BIDAM 포커스-전통’, 청년 안무가 창작지원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춤출챌런지’, 무대에서 벗어나 더욱 가까이 관객을 만나는 ‘BIDAM 오프스테이지’,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BIDAM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소통한다.

임태경 2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임태경.COM:Color of Music**

**일 시** |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크리에이티브라 1661-1301



장르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으로 사랑받아온 크로스오버 임태경의 데뷔 20주년 기념 무대. ‘뮤지컬 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임태경은 귀공자 같은 말끔한 외모와 함께 단단한 성량에 기반한 가창력으로 2005년 뮤지컬 ‘불의 검’으로 뮤지컬 계에 첫 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햄릿’, ‘모차르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청중들과 함께 지난 20년을 추억하며 더욱 깊어진 임태경만의 음악적 해석을 더한 노래로 감동을 선사한다.

하야로비 무용단 **민들레**

**일 시** |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하야로비 무용단 010-7138-9838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순수예술단체로, 1985년 창단 이후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소극장 기획공연, 장애인을 위한 공연, 공연지역 순회공연, 해외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관객과 만나온 하야로비 무용단의 창작무대 ‘민들레’. 우리 땅에서 가장 흔하게 피는 꽃인 ‘민들레’에 특별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입힌 이번 작품은 70년 생의 남성이 보수적인 가정과 성숙하지 못한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숨겨야 했던 개인적인 기호의 자유를 이야기한 작품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을 ‘일반적’ 범주에 묶는 오류에 대해, 누구나 겪는 ‘성장통’에 대해, 한 사람을 구성하는 ‘입체적 정체성’에 대해 주제를 던진다.

**10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1일(금), 25일(금) 오후 2:00, 31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일(월) 오후 7:00 디지털 철학의 최전선\_Why 육취(기술철학자 Yuk Hui)  
 • 강사/최영송(KBS 부산방송총국 PD)  
 11일(금), 25일(금)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 수

14일(월) 오후 7:00 포스트 매체 시대: 대안적 미술 활동과 새로운 매체  
 • 강사/김성연(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  
 21일(월) 오후 7:00 2024 부산 비엔날레: 어둠 속에서 본 동시대 미술의 흐름  
 • 강사/박수지(부산 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  
 28일(월) 오후 7:00 현대미술의 플랫폼: 비엔날레 현상과 부산  
 • 강사/김성연(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  
 31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참석 시 예약

기타 공연장

10월 오페라바움 해설이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낭만·현대 음악을, 금요일에는 고전·낭만 오페라를, 매주 토·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4일~5일), 베르디 '맥베스'(11일~12일), 모차르트 '후궁 탈출'(18일~19일), 도니체티 '돈 파스칼레'(25일~26일)  
콘서트/프로코피예프 '첼로협주곡'(7일, 12일), 프랑스 음악의 밤(14일, 19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럼펫 이중협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1번(21일, 26일),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28일)

2024 인문학과 예술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일 시 |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달맞이언덕인문학포럼  
010-7154-4120, 010-2394-0155

달맞이언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문학과 예술가들의 모임인 '달맞이언덕인문학포럼(회장 송명희)'이 마련하는 2024 인문학과 예술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시와 사진, 그리고 음악을 혼합한 영상시 '가을단상' 낭송, 한국춤과 인문학을 융합한 '번뇌의 별빛은 나빌레라', 탕고 춤과 철학을 융합한 '너에게 닿는 순간-corazón', 대중문화와 철학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와 소통하기', 인문학과 미술 '인문학으로 보는 동시대 부산미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멘터리 기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프로그램

홀스트 모음곡 '혹성' 중 '목성', 브람스 교향곡 3번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베토벤 '합창 환상곡' 하이든 현악사중주 '황제', 슈만 '여인의 사랑과 생애'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낭만음악과 특집' 슈베르트 '미사곡',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벨칸토 음악특집 '베르디와 푸치니의 음악세계 다큐기행' 등

2024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특별기획  
한국근현대미술전 찬란함에 물들다

일 시 | 8월 6일(화)-10월 20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특별전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전

일 시 | 9월 7일(토)-11월 27일(수)  
F1963 석천홀  
입 장 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 ㈜어반플레이 070-8896-5653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展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일 시 | 9월 14일(토)-2025년 3월 9일(일)  
포디움 다이브 엠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19세 미만 1만3천원)  
문 의 | ㈜크리스카홀딩스 752-2200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2만원(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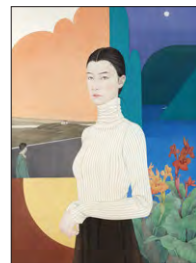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11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강좌에서는 시벨리우스, 그리그, 뮤지컬 '맘마비아'로 대표되는 북유럽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적인 것들의 열거 이재선 초대개인전

일 시 | 10월 5일(토)-10월 29일(화)  
갤러리 한스\* 10월 5일 오후 3:00 오픈닝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강원대학교 교수이자 전통인물화 기법으로 현대적인 인물화를 개척하고 있는 이재선 한국화가 작가 초대 개인전.

이재선 작가는 기법은 전통을 따르지만 구성이나 상황 설정은 서양

화의 방법을 수용, 동서양 인물화의 방법을 혼합하여 한국적 인물화를 목표로 독심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치밀한 사실성을 바탕으로 정신을 담아내는 그의 인물화는 현대인의 다양한 생각을 보여준다.

New Book



우리가 사랑한 부전도서관

이양숙 지음  
해피북미디어 / 2만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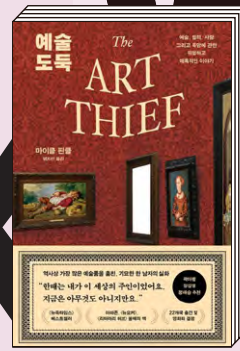
현재 부산에 위치한 51개의 공공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 부전도서관이 2022년 7월부터 휴관 중이다. 이 책은 1901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부전도서관의 120년 역사를 문헌, 사진, 신문기사, 일본어 자료 등을 통해 정리했다.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도서실에서 시작된 부전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 계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 위치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이용객이 방문했으며,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시민이라면 부전도서관에 얽힌 추억 한 조각쯤은 가지고 있다.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36년간 사서로 근무한 이양숙 저자는 부전도서관의 역사성과 공공적 가치에 주목하며 부전도서관의 시작과 걸어온 길을 설명했다. 현재 부전도서관 건물은 오토이 공공도서관으로 신축 개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 건축물이다.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1963년 첫 사업으로 도서관 목적용 공공건물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부산 1세대 건축가에 의해 순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공공도서관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블리스

임현정 지음  
크레타 / 1만 9,000원

피아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열두 살에 홀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임현정. 클래식 역사상 가장 어린 스물네 살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순수한 음악 그 자체만을 탐구하기 위해 콩쿠르를 거부하는 피아니스트,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피아니스트,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와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한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첫 에세이 <침묵의 소리> 발간 후 8년 만에 신간 에세이를 발표했다. 수많은 좌절을 이겨내고 대중 앞에서 멋진 연주를 펼치는 음악가로서의 모습, 음악과 자기 자신을 합일하려 개인의 영성을 찾으려 기록하는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실었다. 임현정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조회수 1,220만 회에 육박하는 '터키 행진곡' 연주처럼 열정이 넘치고, 남들과는 다른 행보로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연주자 임현정은 스스로 기획사를 차려 기획자를 자처하고, 인터스텔라 오케스트라를 창립해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선사한다. 한 명의 독립된 예술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이 책에 담았다.



예술도둑

마이클 핀클 지음 / 엄지선 옮김  
생각의힘 / 1만 7,800원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술작품을 훔쳤다.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쳤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200여 회에 걸쳐 300점 이상 훔쳤고, 금전적 가치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묘한 구석이 있다. 브라이트비저는 변장하지 않았고, 사람들로 붐비는 대낮에 당당하게 입장했다. 도구는 단 하나, 스위스 아미 나이프. 돈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시작은 ‘아름다움’이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핀클이 브라이트비저의 행적과 내면을 쫓은 논픽션이다. 브라이트비저는 도둑도 아니고 스타탈 증후군도 아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라는 심리학자의 진단도 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적 능력에도 문제가 없고, 사회불안장애를 겪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도둑이 됐을까. 예술의 힘, 그리고 애초에 예술이란 무엇일까. 핀클은 브라이트비저의 치밀한 범죄 여정을 따라가며 어쩌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예술에 대한 소유 욕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나라 대표 10개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 참가한다.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국악중흥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한 국악관현악축제로, 전통에 기반을 둔 현재의 한국음악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0월 25일 무대에서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저력을 선보인다.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단 40주년 위촉곡인 국악관현악 ‘1984... 그날의 시작’(김창환 작. 편곡), 국악관현악 ‘미래’(이정호 곡)를 비롯 대금 협주곡 ‘풀꽃’(김대성 곡), 가야금 협주곡 ‘파사칼리아’(박영란 곡),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푸른 달’(강상구 곡)을 들려준다. 특히 위촉곡인 국악관현악 ‘1984... 그날의 시작’은 1984년 첫 위촉곡인 ‘만선’(황



의중 곡)을 비롯하여 1988년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이상규 곡), 1998년 ‘풍어’(김영재 곡), 2004년 ‘꿈의 바다’(정동희 곡), 1997년 ‘축제’(이준호 곡) 등 십없이 달려온 40년 역사 속에 의미있는 다섯 곡을 모아 메들리로 엮은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역사 속에 담긴 국악관현악의 시대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손한별,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이자 가야금주자 고연정,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첼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첼리스트 홍진호가 함께 한다.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재개관



부울경 최초의 클래식음악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이 지난 6개월간의 시설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1일 재개관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은 지난 1992년 준공한 국제회의장을 개조, 2017년 새롭게 문을 연 413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공연장 전체를 울림통으로 설계하여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생생한 음을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클래식음악 전용홀로 각광받았다. 지난해 안전성 검토와 음향컨설팅 용역을 거쳐 올해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챔버홀은 소방설비 보완 등 시설 개선 뿐 아니라 일부 음향·조명 설비를 보완하여 더욱 풍성한 음향이 실현되는 수준 높은 음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챔버홀은 지난 9월 1일 부산시립예술단 앙상블팀의 재개관 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정비된 음향시설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 2025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 예매오픈

2024년 10월 16일(수) 오후 2시

\*정기회원 선오픈 10월 15일(화) 오후 2시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 2025. 1-6월

## January - June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5. 1. 4.(토) 5:00pm,  
1. 8.(수), 1. 10.(금), 1. 14.(화), 1. 17.(금) 7:30pm  
• 예술감독 | 김동욱  
※ 7세 이상 관람

BNK 부산은행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문화 | 대극장** 2025. 1. 11.(토) 5:00pm  
•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 협연 | 소프라노 조수미  
• 연주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Sujin Lee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1. 23.(목) 7:30pm  
1. 24.(금) 11:00am  
3. 25.(화) 7:30pm, 3. 26.(수) 11:00am  
7. 24.(목) 7:30pm, 7. 25.(금) 11:00am  
8. 28.(목) 7:30pm, 8. 29.(금) 11:00am  
10. 30.(목) 7:30pm, 10. 31.(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황필주

####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2025. 2. 20.(목), 4. 4.(금), 5. 29.(목)  
7. 25.(금) 7:30pm  
• 연주 | 유니타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 잠비나이 x 미역수업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잠비나이 | 이일우(기타, 피리, 태평소), 김보미(해금),  
심은용(거문고), 최재혁(드럼), 유병구(베이스)  
• 미역수업 | 최지훈(기타, 보컬), 정주이(베이스, 보컬),  
이완기(드럼), 반재현(기타)  
※ 7세 이상 관람



#### 연극 <랑데뷰>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 독일 고전주의 전통을 몸속 깊이 간직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 두 친구가 들려줄 우정의 선율 김영옥 & 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Shin-Joong Kim ©Holger Talinski

#### 안벽한 균형으로 선사하는 절묘한 음악적 해석의 극치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5. 6. 5.(목)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주 | 에스메 콰르텟(제1바이올린 배원희,  
제2바이올린 하유나, 비올라 디미트리 무라스, 첼로 허예은)  
※ 7세 이상 관람



#### 온 몸으로 외치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박영콜, 이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5. 1. 17.(금) 7:30pm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지휘 | 이동훈 • 사회 | 정희정
- 출연 | 하윤주, 이대하, 이희문과 농농, 정태춘, 궁궁, 트레블러크루
- 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Lukas Beck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Sangwook Lee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실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세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 부산

시민 | 대극장 2025. 3. 29.(토)-3. 30.(일)



HEAVEN

도심 속 문화 쉼터

###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25.(금), 5. 2.(금), 5. 9.(금)

5. 16.(금) 12:10pm

무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용 공연예매 서비스 제공 안내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수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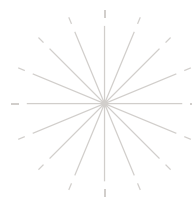
###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5년 1월 4일(토) 오후 5:00, 8일(수),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14일(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차별 20매)

##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 2025 빈 소년 합창단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Sound of Busan #1 브람스 교향곡 No.2 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00, 7:30  
8일(토)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회차별 10매)

### 잠비나이x미역수염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 Sound of Busan #2 브람스 교향곡 No.1 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 연극 <랑데부>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5년 5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 Sound of Busan #3 브람스 교향곡 No.4 외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 에스메 라르렛 리사이틀

2025년 6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 살롱 드 바이올린 KoN(콘) 토크 콘서트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 Sound of Busan #4 브람스 교향곡 No.3 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9. 25.(수)~10. 16.(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10. 24.(목)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 2024년 9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4188    010-\*\*\*\*-0271  
010-\*\*\*\*-0306    010-\*\*\*\*-6142  
010-\*\*\*\*-5452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4. 10. 31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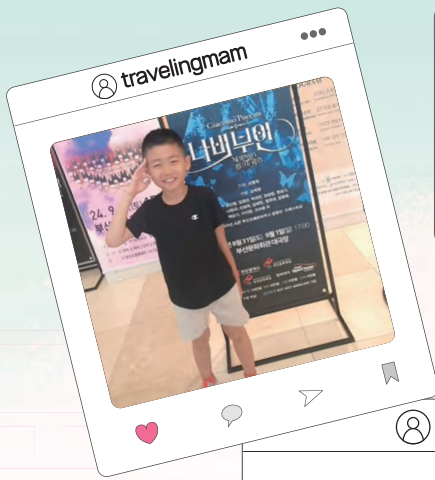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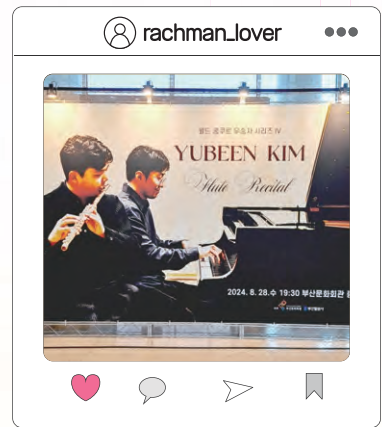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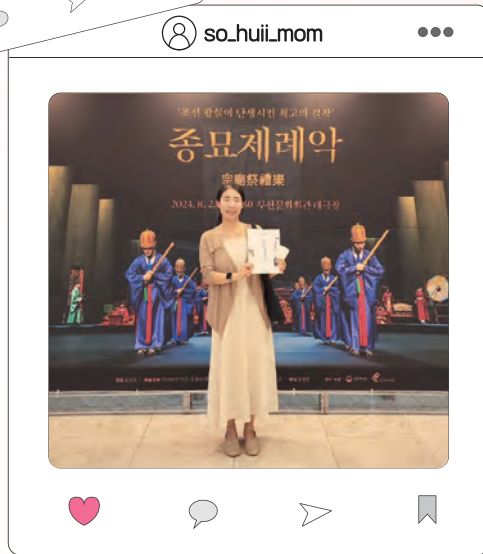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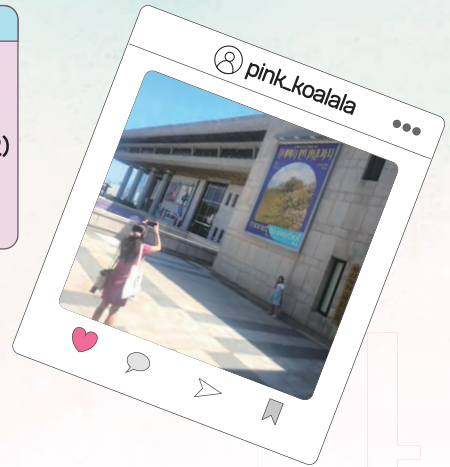
#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10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 ○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11월호



## COUPON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COUPON



###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 COUPON



###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051-607-6000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 부산 제35회 합창제

2024. 10.29 (화) - 10.31 (목)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무료



614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 England

지휘 / 홍석원  
첼로 / 이상은

엘가 / 첼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8번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 2024 시민 뜨락 축제



## 일시

2024. 9. 27. ~ 10. 25.

매주 금요일 12:10~13:00

##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 사회

김동현 MBC 아나운서

도심 속 문화 쉼터,



## 9. 27.

부산시립합창단  
힐링뮤지션 휴[HUE]

## 10. 4.

날라리와 쟁이  
부산시립무용단

## 10. 11.

하퍼스  
이병주 밴드

## 10. 18.

라틴재즈밴드 겟츠 with 살사핏

## 10. 25.

현미밴드  
밴드 휴고

시민뜨락축제



2024. 9. 27. ~ 10. 25.(매주 금요일)



# 우리 음악의 가장 박범훈

## Program

국악관현악 푸살  
해금 협주곡 가리잡이  
댄스스포츠를 위한 국악관현악 왈츠 - 탱고 - 자이브  
25현가야금 협주곡 새산조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 신모듬 中 놀이



2024. 10. 1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